

기괴한 ~ 에이 고딕 서사시

GE 그레이븐 지음



제 7 장



상쾌한 밤공기는 고요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올빼미의 희미한 울음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다. 별들이 빛났다.

어두운 수도원 경내를 환하게 비추는 불빛과 2층짜리 기숙사 창문에서 새어 나오는 몇 개의 기름등잔의 희미한 불빛이 눈에 띄었다. 안뜰 건너편에는 스테인드글라스 창문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는데, 그 빛은 더욱 찬란했다. 마치 성당이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반짝이는 교회 내부, 머리 위 높은 곳에는 정교하고 그늘음으로 얼룩진 프레스코화가 아치형 천장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림은 성당 상부 거의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그 아래로는 거대한 돌기둥 두 줄이 외벽을 따라 길게 늘어서서 본관 전체 길이에 걸쳐 뻗어 있었다. 이 기둥 들은 함께 하늘 높이 솟아올라 천장 속으로 사라지는 비행 부벽을 지탱하고 있었다.

성당의 네 날개 부분 모두 동일한 견고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고, 날개 부분이 만나는 공용 공간에는 덮개가 있는 높은 제단이 서 있었다.

늘어진 태피스트리와 휘장이 제단의 조각된 나무 덮개를 장식했고, 신성한 중심 장식물은 바닥 중앙에 놓인 단단한 돌판 위에 놓여 있었다. 제단 돌판 양쪽에는 두꺼운 가죽 끈이 돌 기초에서 튀어나온 달한 철제 고리에 묶여 있었다.

블라시 추기경은 단상 앞에 서 있었고, 두 개의 키 큰 촛대가 그의 어깨 위로 희미한 불빛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바스락거리는 종이 뭉치에 완전히 몰두하여 그것들을 이리저리 넘기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는 나람신 번역본의 라틴어 구절들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 번역본을 가지고 외경 보관소에서 도망쳐 나온 적이 있었다. 근처에서는 클로디우스와 그레빌 수사가 조용히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세 사람과 제단 석판의 여덟 개 금속 고리에 여러 개의 긴 가죽 밧줄 중 마지막 밧줄을 묶고 있던 그레이트 수사를 제외하고는, 성당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침내 그레이트 수사가 블라시에게 다가갔다. "줄은 단단히 묶였습니다, 수도원장님. 가장 긴 것부터 가장 짧은 것까지, 바깥 쪽에서 안쪽으로 말입니다."

블라시는 잠시 낡은 책 페이지에서 시선을 떼고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레빌은 그레이트의 말을 설명하려 앞으로 나섰다. "제단의 돌 받침대 양쪽에는 고리가 네 개씩 있습니다. 각각의 고리에는 밧줄이 달려 있어야 합니다. 모든 밧줄은 반드시 —"

클로디우스는 한숨을 쉬며 그레빌의 말을 끊고 블라시에게 더 간결하게 설명했다. "제단 석판은 바닥의 두 홈에 놓여 있습니다. 석판을 고르게 당기지 않으면 걸릴 겁니다."

블라시는 눈썹을 치켜올렸지만, 서류에서 눈을 떼지는 않았다. "만약 감염된다면요?" 클로디우스가 대답했다. "만약 걸린다면, 끈들을 짧은 것부터 긴 것 순으로 다시 묶어야 합니다. 그리고 끈의 느슨한 끝부분을 제단 반대편으로 교차시켜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제단 석판을 완전히 닫은 후에 끈의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어렵나요? 복잡한가요?"

클로디우스는 어깨를 으쓱했다. "단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야. 바닥 구덩이를 닫고 다시 여는 데 필요한 시간이지."

블라시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자네에게 그 석판을 제대로 관리하는 임무를 맡기겠네." "임신이 안 돼." 블라시가 말을 이어가자 클로디우스는 몸이 굳어졌다. "물론, 유산이 발생할 경우 너희 둘 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클로디우스는 입이 떡 벌어졌고, 그레이트의 은근한 비웃음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그레빌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몸을 움찔거리며 헛기침을 했다. "각하, 실례지만 석판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블라시는 천천히 책장을 내리고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클로디우스와 그레빌은 추기경의 강철 같은 이마 아래에서 마치 악마 그 자체 처럼 차갑고, 냉혹하며, 단호한 시선을 발견했다. 블라시의 맹인은 마치 그들을 모두 한꺼번에 꿰뚫어 보는 듯했다.

클로디우스는 황급히 시선을 돌려 제단을 바라보며 블라시에게 간청했다. "제단은 옮겨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방법을 알 뿐입니다."

고대 수도원 기록을 통해 그것을 옮기는 것. 우리가 성공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블라시는 그의 말을 끊었다. 그의 말에는 점점 더 참을성이 없어졌다. "당신들이 지금 기속사가 아닌 내 앞에 있는 건, 여전히 내 호감을 사고 있기 때문이요. 두 사람 모두 지하 묘지의 새로운 관리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지, 그렇지?"

"오, 정말이시군요!" 그레빌이 외쳤다. "저희는 겸허히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클로디우스는 그레빌을 노려보며 대답했다. "예. 하지만 원하신다면, 당신의..."

저명."

"그럼, 돌판이 걸리지 않도록 잘 살펴봐야 해!" 블라시가 으르렁거렸다. 클로디우스는 한숨을 쉬었지만, 마지못해 따랐다. "그러겠습니다, 각하."

갑자기 기도실 건물의 바깥쪽 이중문이 활짝 열리자 본 대위는 가장 정예한 병사들로 구성된 두 대열을 이끌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중앙 통로를 따라 걸어갔다. 길게 늘어선 계단식 좌석들이 갈라져 있었다. 백여 켤레의 행군 군화 소리가 성당의 기도실을 가득 채우며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마침내 대장이 멈추라고 외치자 병사들은 제자리에 멈춰 섰다. 그의 목소리가 성당 양쪽 날개의 넓은 공간에 메아리치자, 성당에는 새로운 고요함이 감돌았다.

블라시 추기경과 세 명의 수도원 수도사들은 본 대위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선장은 그들 앞에서 멈춰 서서 뺨을 굵적이며 허리에 손을 얹었다. 그는 초록빛의 날카로운 눈으로 성당을 훑어보았는데, 주로 다음을 살피는 듯했다. 제단과 그에 매달린 밧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수도사들과 한 명씩 눈빛을 교환한 후 블라시에게로 돌아섰다. "시작할까요?" 블라시는 나람신 문서에 다시 시선을 돌리며 대답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대위님. 하지만 제단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클로디우스 수사가 곧 알려드릴 겁니다."

클로디우스는 신호를 알아채고 앞으로 나섰다. "아, 네, 대위님." 그가 말했다. 수도사는 본에게 제단 석판을 고르게 당겨야 하는 중요성을 설명했다. 제자리에 고정되지 않았다. 클로디우스가 본에게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동안 두 사람은 거의 3분 동안 제단 주위를 서성였다. 수도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러므로 병사들의 위치 선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작업이 시작되면 서로 공간을 두고 대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은 바닥에 놓인 여덟 개의 긴 밧줄을 유심히 살폈다. 제단에서 바깥쪽으로 뻗어 나온 밧줄들은 마치 장부맞춤처럼 정확하게 배열되어 있었다. 클로디우스는 덧붙였다. "이제 아시다시피, 제단을 옮기는 작업은 꽤 복잡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신의 병사 98명이 필요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 당신은 몇 명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준비되었나요?

"이제 됐어." 본이 말했다.

"그렇군." 클로디우스는 미간을 찌푸리며 턱을 치켜올렸다. "알겠다." 그는 본의 뺨에 난 흉측한 흉터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본은 몸을 앞으로 기울여 속삭였다. "수도사님, 의로운 눈빛을 조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부하들 앞에서 체면을 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클로디우스는 본의 어깨 너머로 힐끗 쳐다보았다.

그를 응시하는 왕실 근위병 두 줄이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좋습니다." 승려는 툭툭거리며 풀이 죽은 듯 돌아서서 말했다. "당신 부하들을 준비할까요?"

"신부님,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치에 배치하십시오." 본 대위는 손을 천천히 휘저으며 병사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클로디우스는 블라시 추기경을 바라보았고, 블라시 추기경은 고개만 끄덕이며 승인했다.

그리하여 클로디우스는 가죽 밧줄 위에 여덟 줄로 병사들을 배치하는 데 몰두했다. 총 40명이 가장 바깥쪽 두 개의 밧줄을 고정했고, 24명이 그 다음 바깥쪽 밧줄 두 개를, 20명이 그 다음 안쪽 밧줄 두 개를, 그리고 14명이 가장 안쪽 밧줄을 잡았다. 본은 나머지 병사들, 즉 아직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병사들을 배치했다.

성당의 세 입구를 지키기 위해 성당 밖에 밧줄이 설치 되어 있었다. 모두 제자리에 있었고,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성당을 감싼 정적 속에서 클로디우스는 여덟 줄로 늘어선 병사들 뒤로 다가가 제단의 위치를 기준으로 각 대열의 정렬 상태를 점검했다. 마침내 그는 뒤로 물러나 수도사를 바라보았다.

멀리서 그레이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레이트는 블라시 추기경에게 속삭였고, 블라시 추기경은 서류에서 눈을 들어 손짓으로 본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에 본은 부하들을 향해 돌아서서 대열을 돌며 고함을 질렀다. "모든 병사들은!"

당겨! 모든 줄이 한목소리로 당겨! 모든 줄이 박자를 맞춰 3초 당기고 3초 쉬어!" 그는 그들 뒤에 멈춰 서서 허리에 손을 얹었다. "내 신호에 맞춰!" 팽팽하게 당겨진 줄들이 긴장했다. "당겨!"

아흔여덟 명의 병사들이 긴장했다. 여덟 개의 밧줄이 삐걱거렸다. 하지만 제단은 굳건히 자리를 지켰다. 블라시는 클로디우스를 노려보았고, 그레이빌은 안절부절못했다.

"끌어당겨!" 병사들은 다시 밧줄에 몸을 기대었고, 6 톤에 달하는 바위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굉음이 성당 바닥에 울려 퍼졌다.

"힘내!"—그리고 몇 인치 더 밀어 올렸다.

"힘내!"—그리고 더 많은 말들이 이어집니다.

"힘내!"—더 많이.

"괴로운 듯이 내다!"

준비가 완벽하게 된 본은 마치 거친 노를 젓는 뱃사람들 위에서 북을 치는 사람처럼 리듬을 유지했다. 그의 병사들은 헛헛거리고 신음하는 합창단 같았다. 그리고 본의 새로운 명령이 내려질 때마다, 돌판은 더욱 더러운 바닥을 드러냈다. 본이 있던 제단 반대편에서 블라시는 직사각형 구멍이 서서히 시야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그 구멍에서는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곰팡이 냄새가 뿜어져 나왔다. 마침내 깊은 구덩이가 완전히 드러나자 쿵 하는 큰 소리가 울려 퍼졌다.

교회를 통해.

"다 됐습니다." 클로디우스가 블라시에게 알렸다. "석판은 더 이상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블라시는 열린 구덩이 쪽으로 걸어가며 본에게 손짓했다.

"놓아!" 본이 소리쳤다. 병사들은 밧줄을 놓았다. 땀에 젖은 팔이 축 늘어졌고, 몇몇은 바닥에 쓰러졌으며, 다른 몇몇은 허리를 굽히고 헐떡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자들은 고개를 뒤로 젓히고 입을 벌린 채 곳곳이 서서, 천사 그림이 그려진 천장을 향해 킁킁거리고 있었다.

프라이어스, 그레이트, 그레이빌은 더러운 구덩이 가장자리를 따라 키 큰 촛대 몇 개를 늘어놓았다. 블라시는 불이 켜진 구덩이를 살펴보았다. 깊이가 3.6미터(12피트)에 달하는 이 구덩이는 가로세로 각각 4.8미터(16피트) 크기였다. 네 벽면은 모두 검은 수지로 뒤덮여 있었는데, 마치 석탄재가 흩날린 물 표면에 얇게 덮인 막 같았다.

오래 사용한 벽난로 굴뚝이었다. 하지만 그 더러움 속에서도 블라시는 모든 벽 중앙에 새겨진 비슷한 무늬를 발견했다. 십자가 모양의 에칭이었는데, 각각의 십자가 중심에는 세 개의 동심원이 둘러싸고 있었다. 그러나 그를 사로잡은 것, 그의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멎게 할 정도로 그를 기절시킬 뻔한 것은, 눈에 띄게 그을린 구덩이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무언가였다.

검고 윤기 나는 직사각형 돌이 뚜렷한 모서리와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가진 채 움푹 들어간 곳의 중앙 바닥에서 솟아 있었다. 촛대 불빛 아래 돌의 유리처럼 매끄러운 면이 반사되었다. 마치 높이 7피트, 너비 5피트, 깊이 3피트의 고도로 연마된 오닉스 덩어리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외에는 단단해 보이는 이 모놀리스에는 가장 넓은 면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흠집 하나 없는 2피트 크기의 구멍이 하나 있었다. 그 구멍에는 겹겹이 새겨진 문양이 완벽하게 새겨져 있었다.

기하학적 문양이 외면을 뒤덮고 있었으며, 심지어 뺨 뚫린 구멍의 곡선 안쪽까지 새겨져 있었다.

블라시는 마음속으로 외경의 스케치들과 다음 인물들의 유사점을 떠올렸다. 진품 유물이 바로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완전히 매료된 그는 구덩이 주위를 서성거렸고, 그의 유일하게 멀쩡한 눈에는 빛이 반짝였다. 그의 시선은 멎었다. 어쩌면 그것은 지옥이 실재하며, 그 높은 돌문이 그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에 대한 모든 의심과 불신을 잠재우는, 충격적인 진실이 서서히 다가오는 모습을 드러내려는 듯했다.

멀리서 본 선장이 블라시에게 소리쳤다. "그럼 더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기경은 마치 문설주 이미지에 홀린 듯 중얼거렸지만, 죽은 형제들에 대한 기억이 그의 생각을 사로잡아 빠르게 되살아났다.
 그것은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영국 국왕 에드워드에 대한 강렬한 증오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기억과 쓰라림이 뒤섞인 순간, 그는 장 자크 블라시의 영혼이 그에게 속삭이는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들은 비밀을 숨기고 있다. 영국 왕을 파멸시킬 무기를. 프랑수아, 자네가 이 무기를 말아야 한다. 그에게 맞서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요?" 본은 점점 더 초조해하며 물었다.
 블라시는 황홀경에서 깨어나 소리쳤다. "그레이트 수사님, 안으로 들어가면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불빛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저와 함께 가십시오." 그는 본에게로 돌아섰다. "제가 배에서 내려갈 수 있도록 밧줄과 당신 부하 몇 명이 필요합니다."
 승려들과 병사들은 각자 할 일에 몰두했다.

잠시 후, 클로디우스와 그레빌은 블라시 옆으로 다가갔고, 블라시는 이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나라스신 페이지들. 추기경은 몸을 돌려 클로디우스에게 서류 뭉치를 건네주기 전에 말했다. "이 양피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조심해서 다뤄라. 섬세한 물건들이니 절대 떨어뜨리지 마라. 내가 정성껏 정리해 놓았으니 말이다."

"그렇습니다, 각하." 클로디우스는 그에게서 책을 받아 들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은 연약한 페이지들을 훑어보며, 자신이 고대 서적을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블라시는 "내가 부르면 그것들을 내게 건네주어야 한다" 고 지시를 덧붙였다.

본은 구덩이 쪽으로 밧줄을 끌어당기는 병사 옆을 따라 걸어갔다. 세 명의 병사가 그를 뒤따랐다. 구덩이 가장자리에 이르자 병사들은 밧줄을 구덩이 가장자리 아래로 내렸다. 블라시를 바닥 아래로 내려보내는 것을 도왔다. 그들 뒤에서 그레이트 신부가 일곱 개의 불꽃이 있는 작은 촛대를 들고 급히 앞으로 나섰다. 갑자기 멈춰 선 그의 샌들이 구멍을 덮은 때에 미끄러져 구덩이 속으로 떨어질 뻔했다. 그는 촛불을 든 채 가장자리에 매달려 있었고, 본은 그의 옷자락을 꼭 움켜쥐고 있었다. 대장은 그를 잡아당겨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리며 어깨 너머로 빛 소리를 내며 말했다. "활기찬 신부 노릇이나 하면서 죽음을 조롱하는군."

구덩이 안에서 블라시는 샌들을 바닥에 디디고 밧줄을 놓았다. 추기경은 옷자락에 묻은 얼룩을 닦아냈지만, 지우지 않는 그늘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어두컴컴한 주변을 살피다가 아래에서 소리쳤다. "그레이트 수사! 횃불을 가져오시오!" 병사들은 그레이트 수사를 구덩이 안으로 내려보냈다. 블라시는 벽 가까이 다가가 손을 위로 뻗어 클로디우스에게 손짓했다. "내 양피지 들을 내게 주시오."

클로디우스는 더러운 바닥과 자신의 깨끗한 옷을 비교했다. 그는 대신 서류 멍치를 그레빌에게 건네주었다. "그에게 전해." 그레빌은 클로디우스를 노려보며 서류를 받아 들었다. 그는 더러운 구덩이 가장자리에 엎드려 서류를 블라시에게 건넸다. 블라시는 서류를 받아 들고 클로디우스에게 소리쳤다. "수도원 지하 묘지를 관리하고 싶어 하시지만, 그곳은 이 구덩이만큼이나 더럽습니다. 당신의 임명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클로디우스는 입술을 꼭 다물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구멍 안으로 들어간 프라이어 그레이트는 팔을 들어 병사 중 한 명에게서 촛대를 받아 들었고, 뜨거운 촛농이 팔뚝 아래쪽으로 흘러내리자 얼굴을 찡그렸다.

"빛을 가져오세요." 블라시는 게이트스톤으로 다가가며 그레이트에게 외쳤다.

수도사가 문석의 매끄러운 면을 비추자 추기경은 그 위에 새겨진 여러 줄의, 분명하지만 해독할 수 없는 글자들을 살펴보았다. 그 글자들은 프랑스어도 라틴어도 아니었지만, 마치 당대 최고의 학자들조차 알지 못하는 미지의 언어처럼 유려하게 배열되어 있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 글자들이 상형문자가 아니라 기하학적 도형이라는 사실이었다. 블라시 추기경은 이 도형들을 외경 보관소에 숨겨져 있던 여러 문헌에서 이미 본 적이 있었다.

블라시는 그라테 추기경에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고 손짓했다. 추기경은 조금 더 뒤로 물러섰다.

문석의 표면에서 시선을 돌려 새겨진 그림들 앞에 정확히 자리를 잡았다.

그의 눈에는 기호들의 흐름이 하나의 패턴을 이루는 듯했다. 원과 선들이 줄지어 늘어선 모습은 마치 즉시 발음해야 할 비문의 질서를 암시하는 듯했다.

하지만 블라시는 외경에 나오는 똑같은 상징들을 수없이 연구하며, 마치 그 상징들이 내는 소리를 흉내 내고 싶을 만큼 몰입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알아챌 수 없다는 좌절감만 되풀이했을 뿐이었다. 그는 시선을 떨궜다.

그는 손에 든 페이지를 펼쳐 보이며, 나람신이라는 이름의 평범한 수도원 성직자가 어떻게 그토록 난해한 비문을 라틴어로 번역해냈는지 궁금해했다.

블라시의 서류들이 펄럭이고 그레이트의 불꽃이 시원한 바람에 흔들렸다. 그 바람은 갑자기 그들의 샌들 신은 발 위로 쏟아졌다. 두 사람은 고개를 들어 클로디우스, 그레빌, 그리고 본이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블라시는 그들을 무시하고 게이트스톤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고개를 기울여 게이트스톤의 구멍으로 들여다보았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구덩이의 먼 벽만 보였다. 그는 게이트스톤 표면에 손가락을 대어 보았지만, 예상외로 차가웠다. 그는 다시 원래의 거리로 물러나 턱을 문지르며 생각에 잠긴 채 거대한 돌기를 응시했다.

본은 점점 참을성이 없어지는 듯 목을 가다듬었다. 블라시는 그 소음에 눈길조차 주지 않고 대답했다.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대위님. 어떤 일에는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본은 씩씩거리며 허리에 손을 얹고 구멍 가장자리를 서성거렸다. "그건..."

"빌어먹을 바보 같은 바위 같으니." 그가 투덜거렸다.

그제야 블라시는 아무렇지 않게 본을 올려다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돌멩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본은 자신의 주장을 "바위다"라고 재확인했다.

블라시는 그레이트에게 양피지 몽치를 건네주고 본이 서 있던 바로 아래 구덩이 바닥으로 다가가 그를 향해 소리쳤다. "혹시 잠시만이라도 단검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본은 허리에 찬 뼈 손잡이 칼집에 꽂힌 칼을 짝 움켜쥐었다. "왜 그랬지?"

"당신이 너무나 쉽게 '그저 돌멩이' 라고 부르는 이 물체에 대해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대장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던 그레빌은 클로디우스의 귀에 속삭이듯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 무기를 들고 들어갔어!"

본은 칼집에서 칼을 뽑아 들었다. 엄지손가락으로 윤이 나는 칼날에 묻은 이반의 핏자국을 닦아냈다. 클로디우스는 신성한 교회 안에 칼이 있는 것을 보고 눈을 가늘게 뜨고 턱을 굳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본은 블라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는 동의하며 칼을 구덩이 속으로 던졌다. 단검은 추기경 옆 바닥에 부딪히며 짤랑거렸다. "네 축복받은 돌에 흠집을 내서 그 마법을 보여주시오."

블라시는 칼을 집어 들며 고개를 저었다. "오, 흠집 하나 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칼날로 당신의 모든 주의를 끌 수는 있겠죠." 그는 한 발짝 물러나 문석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는 살짝 허리를 굽혀 문석 중앙 구멍에 칼을 던졌다.

본은 단검이 구멍 반대편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단검이 사라진 것 같았다. 그는 구덩이 가장자리를 따라 돌아보았지만, 바닥에도 칼이 보이지 않았다. 클로디우스와 그레빌도 당황한 채 그를 따라갔다. 마침내 본은 블라시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폐하의 궁정에서 이보다 더 훌륭한 마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제 칼을 돌려주세요.

순식간에 번쩍이는 빛과 함께 성당 천장이 환하게 밝아졌고, 본의 단검이 그를 향해 날아와 셔츠 왼쪽 소매를 찢고 부츠 앞코를 꿰뚫었다.

돌바닥에 단단히 박히기 전에, 본은 엉덩방아를 찢으며 뒤로 넘어졌고, 부츠는 여전히 제자리에 박혀 있었다. 그는 발가락 사이에 박힌 단검을 바라보았다. 손잡이에는 얇은 서리가 덮여 있었다. 찢어진 소매를 살펴보니 팔뚝에 붉은 실이 맺혀 있었다. 그리고 교회의 천장을 훑어보았지만, 천사와 악마가 싸우고 눈물을 흘리는 왕들의 벽화밖에 없었다.

클로디우스와 그레빌은 눈썹을 치켜올리고 입을 벌린 채 떨어진 검을 응시했다. 블라시는 구덩이의 그림자 속에 서서 구덩이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본에게 "안타깝게도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대위님. 칼은 더 이상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본은 단검 끝을 부러뜨리고는 투덜거리며 부츠에서 단검을 뽑아냈다.

숨이 턱 막히는 듯 말했다. "다시 한번 그러지 않으면 네가 추기경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겠다." 한 병사가 달려 나와 도움을 청했다. 본은 그의 손을 잡았고, 병사는 그를 황급히 일으켜 세웠다. 그러자 대위는 무딘 단검을 칼집에 넣으며 병사에게 속삭였다. "아르몽 하사, 지금은 병사들을 격려해야 할 때다. 내가 뭘 기대하는지 알겠지? 자, 어서 해. 서두르시오." 아르몽은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성당 문 쪽으로 달려갔다. 그때 본이 천장을 훑어보며 그를 향해 소리쳤다. "그리고 내 투구를 가져오시오!" 아르몽은 멈춰 서서 다시 한번 재빨리 허리를 숙인 후 달려갔다.

그레빌은 블라시에게 "칼날이 여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본은 조심스럽게 구덩이 가장자리로 다가갔다. 블라시가 팔짱을 낀 채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직도 돌입니까, 대위님?" 하지만 본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블라시는 몸을 돌려 클로디우스에게 지시했다. "제단에 걸린 밧줄의 방향을 바꾸고, 대위의 병사들을 석판 반대편에 배치하여 구덩이를 다시 봉쇄하도록 해." 클로디우스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 발짝 물러섰지만, 멈춰 서서 본에게 승인을 구하는 눈빛을 보냈다. 본은 고개를 끄덕이며 짜증스럽게 손을 흔들어 그를 돌려보냈다. 그렇게 그레빌은 밧줄의 위치를 바꾸고, 클로디우스는 병사들의 위치를 재조정했다.

지하 구덩이 안에서 블라시 추기경은 이미 문석에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 클로디우스가 그레빌이 거꾸로 매달아 놓은 밧줄에 본의 부하들을 모두 묶어 놓자, 추기경은 그레이트에게서 나라신 번역본을 가져와 수도사에게 촛대를 특정 높이로 들라고 지시했다. 문석 전체를 볼 수 있으면서도 글자를 읽을 수 있을 만큼 높이 들라는 것이었다. 갑자기 병사의 재채기 소리가 성당 내부를 가득 채웠고, 블라시는 본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조용히 해, 대위."

본은 부하들에게 "한 소리도 내지 마라!" 라고 지시했다.

불안한 침묵이 이어졌고, 블라시의 맑고 차분한 목소리만이 그 침묵을 깼다.

그는 손에 든 페이지부터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Et erit fugerit a voce formidinis cadet in faveam et qui se explicuerit de fovea tenebitur laqueo—"

블라시는 문석 주위를 돌며 나람신의 라틴어 시구를 소리 내어 읽었다. 그레이트 수사는 소매에 매달린 채 촛대를 높이 들었다. 마침내 플라시는 걸음을 멈추고 석상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는 선택한 시구 중 마지막 구절을 읊었다. "—formido et fovea et laqueus super et qui habitator es terrae." 그런 다음 그는 책장을 내리고 석상을 살펴보았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흘렀다. 마침내 플라시와 그레이트 수사는 앞으로 나아가 변함없는 석상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3분간의 침묵이 한창일 때, 본은 플라시에게 소리쳤다. "각하, 이제 유령 군대가 보이는 척해야 할까요? 아니면 각하의 묘비에 물이 빠져나간 걸까요?"

광대가 내 칼로 장난을 친 후에 생긴 마법인가?"

플라시는 고개를 들어 본의 은은한 미소를 바라보며 말했다. "캡틴, 당신의 인생 전체는 이 돌 앞에서는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본은 팔짱을 끼고 비웃으며 대답했다. "당신 인생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조약돌이군." 병사들이 깔깔거렸다. "조용히 해!" 그는 그들을 꾸짖었다.

클로디우스와 그레빌은 본과 그의 부하들과 떨어져 서 있었고, 두 수도사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그레빌은 클로디우스에게 속삭였다. "내가 상급 평의회 사제로 재직했던 모든 세월 동안, 그리고 그 돌에 대한 기록과 묘사를 모두 읽어봤지만, 이 제단 아래에 그런 것이 정말로 존재한다고는 단 한 번도 믿을 수 없었네."

그들은 단지 신앙을 가진 척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상급 평의회 수도사들 대부분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단지 혹독한 질책을 받을까 두려웠을 뿐입니다."

"이제 알았어." 클로디우스는 구덩이 쪽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 수도원이 그런 돌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정말로 믿었습니까?"

클로디우스는 턱을 치켜들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기 전에 목을 가다듬었다. "하지만 저는 필사실의 스케치와는 다르게 보이도록 돌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레빌이 물었다.

클로디우스는 팔짱을 끼고 곰곰이 생각하며 손가락으로 턱을 쓰다듬다가 대답했다. "글쎄, 그 돌에 새겨진 모습이 너무 완벽해 보였소. 오직 하늘만이 아시겠지."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훨씬 더 흔해 보였습니다. 마치 다른 시대의 원시적인 유물처럼 말이죠." 그는 먼 곳을 응시하며 그레빌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더 나아가, 저는 그것이 영국에 있는 그 거대한 입석들, 즉 고대의 석상들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돌들이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었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아, 그거요? 네, 기억합니다." 그레빌은 바닥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는 클로디우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렇다면 검은 눈과 음흉한 눈빛으로 순진한 남자들을 유혹하는 돌의 여인 유령은 어떻습니까? 보니히 수도원장과 다른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녀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그녀가 기괴한 존재들의 어머니라고 믿으십니까?"

클로디우스는 그레빌의 질문 방식이 갑자기 그를 아프게 한 듯 움찔했다. "어떻게?"

그녀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육신을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차갑고 창백하지만, 당신이나 나처럼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제 말을 명심하십시오, 그레빌. 기괴한 악마의 어머니는 실재합니다."

그레빌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수도원에 머문 오랜 세월 동안 그녀의 흔적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꿈에서 그녀를 본 적도 없고요." 그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클로디우스에게로 돌아섰다.

"당신은 그녀를 본 적이 있습니까?"

클로디우스는 숨이 막힐 듯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레빌, 감히 내 신앙을 의심하지 마라! 내게 말조심해라!"

"오, 아니오. 당신이 절대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레빌이 소리쳤다. "혹시 그녀를 보셨을까 해서 여쭙본 것뿐이에요. 용서해 주십시오." 클로디우스는 눈을 굴리며 성당의 어두운 곳을 바라보았다. 아마도 그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 영혼을 찾고 있는 듯했다. 그레빌은 헛기침을 하고는 급히 강도를 도는 본에게 시선을 돌렸다.

본은 구덩이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는 두 병사에게 다가갔다. 그들 사이에는 가죽 밧줄의 한쪽 끝이 놓여 있었다. 그는 병사 중 한 명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구멍에서 끈을 빼내고 끝에 고리를 만들어라. 추기경이 들어 올려달라고 부를 때 밧줄을 넣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게." 점점 커지는 발소리에 대위는 성당의 기도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서 그의 부하인 아르몽과 몇몇 병사들이 그에게로 서둘러 다가오고 있었다. 아르몽은 예비 투구와 함께 양손에 각각 석궁 한 자루씩을 들고 있었다. 그를 따라온 네 명의 병사들은 각각 석궁 한 자루씩만 가지고 있었다. 모두 평평한,

가죽 화살통에 담긴 볼트를 허벅지에 묶고 있었다.

제단 밧줄 위에 서 있던 98명의 병사들은 아르몽 하사와 그의 소규모 무장 부대를 발견하자 불만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그들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경계를 이탈하거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용서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행위였다. 그 결과, 병사들의 분위기는 바뀌었다. 마치 대위가 더 큰 주의를 기울이고 불복종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릴 구실을 찾을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클로디우스는 본에게 다가가 꾸짖으며 말했다. "캡틴, 칼은 용서할 수 있지만, 저 사람들은 석궁을 들고 있다! 이곳은 신의 집이다! 용납할 수 없다—"

본은 몸을 돌려 클로디우스와 그레빌에게 손가락을 튕겼고, 두 사람은 걸음을 멈췄다. "너희 둘다!" 그는 성당 저편 벽에 있는 거대한 돌기둥 두 개를 가리켰다. "저 기둥 너머 벽에 자리를 잡아라. 혹시라도 화살에 맞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우연히 맞는다는 가정 하에 말이지." 본은 그들을 노려보았다.

클로디우스는 대장의 은근한 위협을 생각하며 얼굴을 찌푸렸다. 두 수도사는 서둘러 기둥들을 지나쳐 벽에 걸린 커다란 돌로 조각된 예수 십자가 아래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서 있었다.

팔짱을 낀 채 생각에 잠긴 듯 서 있었다.

본은 아르몬드에게로 돌아서서 여분의 투구를 가져왔다. 투구를 쓰면서 그는 석궁병들에게 속삭였다. "내가 뭘 기대하는지 알잖아. 예외는 없어. 하지만, 아니, 사제들에게 해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중 누군가가 추기경에게 해를 입히게 된다면, 그의 양피지를 빼앗으면 네 발을 잘라 개들에게 먹여 버리겠다." 본은 그들의 눈을 살폈고 궁수들은 안절부절못했지만, 하사는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켰다. 대위는 강당 입구 근처의 탁 트인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병사들을 정확히 저기에 배치해라."

“예, 대위님.” 아르몬드는 허리를 휙 돌려 인사하고는 부하들에게 말했다. “따라오너라.” 본은 아르몬드가 병사들을 이끌고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순간, 그는 머릿속으로 젊고 노련한 그 하사를 떠올렸다. 그는 마치 과거 자신의 야심만만했던 모습을 닮은 듯했다.

그러나 제단에 묶여 있던 98명의 병사들은 아르몬드와 그의 석궁 병 소대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하사가 작은 대열을 만들어 무릎을 꿇고 무기를 준비 자세로 배치한 후, 자신들을 향해 겨누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그가 석궁병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98명의 병사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세 개의 성당 입구를 차례로 가리켰다. 그들은 그가 새로 배치된 부대의 뒤쪽으로 돌아가 무릎 꿇은 궁수들의 등 뒤에 석궁 두 자루를 겨누고 본 대위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대위가 신뢰하는 부사관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이러한 절차를 알고 있었고, 98명의 병사들은 이제 모든 명령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움직인다!” 그레이트의 목소리가 구덩이 안에서 들려왔다. 본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구멍으로 다가갔다.

웁푼 들어간 곳 안에서 블라시는 문석에 새겨진 면 가까이에 촛대를 들고 있는 그레이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죽음과 같은 고요함 속에서 수도사는 속삭였다. "저기." 그레이트는 유리처럼 매끄럽고 검은 표면, 즉 그가 높이 든 촛대의 길고 고요한 불꽃이 비친 모습을 가리켰다. "불꽃의 반사된 모습이 보이십니까? 어떻게 휘어지는지." 바람 한 점 불지 않았지만, 그레이트는 텅 빈 구덩이를 가득 채운 듯한 갑작스러운 한기에 몸을 떨었다. 그는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어깨 너머로 보니 구덩이 벽이 이제 물방울로 완전히 뒤덮여 반짝거리고 있었고, 그 물방울들은 더러운 표면에 갑자기 응결되어 있었다. “가만히 있어.” 블라시가 으르렁거렸다. 그는 차가운 문석 표면을 손가락으로 쓸어 보았다. 문석은 굳건히 서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대의 불빛이 비친 모습은 마치 잔물결이 이는 물속을 지나가는 불꽃의 거울상처럼 흔들렸다. “정말 그렇군.” 블라시는 중얼거리며 표면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몸을 뒤로 젖히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게이트스톤에서. "이게 뭐지?"

좀 더 안전한 거리에서 블라시와 그레이트는 문석에 새겨진 글자들이 한 줄씩 사라지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새겨진 글자들이 마치 씻겨 내려가듯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는 매끄럽고 윤기 나는 검은색 돌 표면만이 남았다. 모든 글자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문석의 모든 면이 검은 유리처럼 매끄러워지자, 무지갯빛 얼음 결정들이 퍼져나가 문석을 감쌌다.

이제는 서리가 내린 조각상. 공기 중에 남아 있던 한기가 갑자기 매서운 추위로 변했다. 사제들은 서로의 입김에 김이 서린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갑자기 구덩이 벽으로 물러나 한때 단단했던 문석의 표면이 마치 얼음으로 뒤덮인 전체 덩어리가 여러 곳에서 숨을 쉬는 것처럼 부풀어 오르고 수축하며 솟구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발밑에서는 깊은 굉음과 함께 진동이 점점 커져갔고, 두 사람은 얼굴이 붉어지고 수척해진 채 서로 표정을 교환한 후 떨리는 바닥을 살폈다.

구덩이 밖, 성당 맞은편 벽에 기대어 클로디우스 수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 옆에 서 있었다. 거대한 기둥들 사이로 팔짱을 끼고 거만한 태도를 지으며 그는 그레빌 수사에게 은밀히 불평했다. "원장님 서재에서 추기경께서 직접 당신과 저를 보좌관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각하와 함께 구덩이에 들어가야 합니다." 클로디우스는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레이트 수사 대신 내가 거기 있어야지. 내가 그 돌에 대해 그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거든!" 그는 툭툭거렸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 벽에 기대서, 아무 의미 있는 일에서도 동떨어져, 마치 보잘것없는 종자 두 명처럼 서 있군." 그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얼굴을 찡그렸다. "그리고 저 대장은 내 인내심을 시험하는 데는 최고로 열중하지." 클로디우스는 한숨을 쉬며 기둥에 어깨를 기댔다. "잘 들어, 그레빌. 내가 이렇게 세심하고 사려 깊지 않았더라면—"

클로디우스는 이를 악물고 자신이 기대고 있던 기둥을 바라보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내려놓았다. 그는 먼저 손을 기둥에 얹고, 그다음 두 손을 얹고, 그다음 귀를 얹고, 머리를 기둥에 기대며 말했다. "그레빌, 이 기둥에 손을 얹어 봐. 그레빌?" 클로디우스는 어깨 너머로 돌아보니 그레빌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멀리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레빌은 한 손을 들어 벽에 걸린 십자가의 밑부분을 가볍게 만지며 교회 벽에 기대어 있었다.

"서둘러!" 클로디우스가 그레빌에게 손짓했다.

하지만 그레빌은 벽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움직여!" 그는 팔을 내리고 조각상을 가리키며 외쳤다. 클로디우스는 기둥에서 내려와 그에게 다가갔다. 그레빌은 십자가상이 있는 쪽으로 귀를 대고 클로디우스에게 더 자세히 들어보라고 손짓했다.

"떨리는 소리가 들리는군!" 클로디우스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고개를 가우뚱거렸고, 조각상이 돌담에 부딪히며 희미하고 빠르게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기둥도 흔들리는군요." 클로디우스는 어깨 너머로 방금 떠나온 기둥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두 사제는 곧바로 그 기둥을 자세히 살피보았다.

바닥.

그레빌이 말했다. " 벽도, 기둥도, 이제는 바닥 까지... 어쩌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군요?"

클로디우스는 천장의 프레스코화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 벽화는 좋지 않군 .”이라고 말했다.

클로디우스는 넓고 높이 솟은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림의 중앙, 성당 제단 위 높은 곳에는 세 왕의 전신 초상화가 푸른 불꽃 고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원형 바깥쪽, 그것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곳에는 검, 방패, 갑옷, 투구를 착용한 천사들의 전투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마치 공중 군대처럼, 이 천사들은 날개 달린 악마 무리로부터 세 왕을 지키는 듯 보였다. 이 악마들은 모두 성당 외곽 지붕의 윗부분 테라스에 늘어진 여러 석상들과 유사한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

그레빌은 클로디우스에게 속삭였다.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그가 자신이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 즉 악과 결탁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클로디우스는 움찔하며 천천히 몸을 돌렸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기경이라니!” 그레빌이 소리쳤다. “그가 영국인들을 해치려고 악령을 소환하는 것 이상의 의도를 품고 있다면 어떡하지 ? 혹시 그 자신이 악마이고, 단지 문에 걸린 돌을 열기 위해 수도원 에 온 건 아닐까 ?”

클로디우스는 뒷걸음질 쳤다. "자네는 계산을 잊어버렸나 보군! 이단적인 소리를 하고 있군! 맹세컨대 , 그는 아비뇽 추기경이라고!"

그레빌은 말을 이었다. "저는 하급 평의회 소속 수도사이지만, 그분이 낭송하신 구절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 혹시 기억나십니까?"

클로디우스는 그레빌의 얼굴에 바짝 다가가 꾸짖었다. "그는 단순한 공의회 수도사가 아니라 공의회 추기경이다! 게다가 석판에 새겨진 모든 번역본을 손에 쥐고 있다!"

그는 문석에 관해서라면 우리 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

“그래도,” 그레빌이 재촉했다. “그가 낭송한 구절 중에 아는 것이 있습니까 ?”

클로디우스는 그레빌의 팔을 잡고 성당 바닥이 진동하는 이유를 귓속말로 으르렁거렸다 .

"교회 밖에서 말들이 질주하는 소리 때문이야." 그리고 그는 그레빌을 놓아주며 위협했다.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라! 새 수도원장에 대한 네놈의 이단적인 비난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지하 묘지 관리인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그레빌은 심술궂은 한숨을 내쉬며 클로디우스를 돌려보냈다. 질책받은 수도 사는 팔짱을 끼고 제단 밧줄에 묶여 떨리는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는 병사들을 노려보았다. 몇몇은 걱정스러운 듯 속삭였고, 병사들은 안절부절못하며 모두 약간씩 흔들렸다.

본은 세 명의 병사와 함께 구덩이 가장자리에 서서 긴장한 병사들을 엄하게 노려보며 소리쳤다. "침묵하라! 입을 다물어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 자는 내 채찍질 기둥에 매달려 격렬한 열정을 불태울 것이다!" 그는 몸을 돌렸다. "아르몬드, 준비 태세! 무기를 겨누어라!" 그는 다시 몸을 돌렸다. "모두 나에게만 집중하라. 서로에게도, 바닥에게도, 사제들에게도, 오직 나에게만!" 거의 백 명에 달하는 병사들이 마치 조각상처럼 굳어버린 채, 시선을 대장에게 고정했다. 그 순간 유일하게 눈에 띄는 움직임은 본의 부츠 바로 아래, 구덩이 바닥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구멍 안에서 블라시 추기경은 벽으로 물러나 늘어진 밧줄을 더듬어 찾았지만, 결국로 뒤덮인 미끄럽고 차가운 표면만 만질 수 있었다.

프라이어 그레이트는 벽의 반짝이는 광택 위로 촛대를 움직여 끈을 찾았다. 순간, 촛대의 불꽃이 벽에서 멀어지며 기울어졌다.

게이트스톤 방향으로. 그레이트는 고개를 들어 구멍의 윗부분을 살펴보고, 자신이 들고 있던 불빛처럼 모든 촛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주변의 바닥 촛대들도 마찬가지로 구덩이 중앙을 향해 기울어져 있었다.

"캡틴! 밧줄 좀 풀어주세요!" 블라시는 검은 때를 한 움큼 옷에 닦아내며 작은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그러고는 어깨 너머로 불룩 솟은 게이트스톤을 힐끗 쳐다보았다. "자, 이제 좀 풀어주세요!"

본이 블라시에게 "밧줄 고리 안쪽으로 발을 넣어라" 라고 지시하자, 한 병사가 급히 밧줄을 내렸다. 블라시는 밧줄을 잡았는데, 그때—

"푸쉬!" 귀청을 찢는 듯한 공기 폭발음과 함께 화산 분출구가 터지는 듯한 멈추지 않는 쇠 소리가 터져 나왔다. 두 사제는 몸을 던졌다.

벽에 부딪혔다. 그레이트의 촛대가 구덩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불꽃이 꺼졌다.

블라시는 나람신 번역본을 잃어버렸고, 페이지 문치는 흩어졌다. 그는 갑자기 바닥을 기어 다니며 흩어진 페이지들을 주위 담으려 애썼지만, 동시에 문석과 그 중앙의 구멍, 이제는 메워지고 있는 그 구멍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검은 안개가 소용돌이치며 피어올랐다. 휘몰아치는 어둠은 짙은 구름처럼 게이트스톤 밖으로 쏟아져 나오기 전에 연기를 내뿜었다. 블라시는 마지막 남은 페이지를 움켜쥐고 달려들었다.

짙은 안개가 갱도 바닥을 뒤덮고 그의 발을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렸을 때, 그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마치 갱도 바닥 전체가 칠흑 같은 그림자에 완전히 뒤덮여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블라시는 검은 그늘음으로 뒤덮인 얼음 조각들이 벽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순간 밧줄을 움켜잡았다.

그는 샌들을 벗고 밧줄 끝의 고리를 붙잡고 발 디딜 곳을 필사적으로 찾았다. 검은 안개가 그의 허리 높이까지 올라왔다. "당겨! 제발! 나를 꺼내줘!" 그는 나람신 책의 페이지들을 입에 물고 밧줄을 짊 움켜쥐었다.

그레이트는 부식성 연기 속을 발걸음을 높이 들며 비명을 질렀다. "불이야! 불이다!"

위에서 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 둘, 줄을 당겨! 너는 다른 사람을 데려와! 움직여!"

"지금 당장!" 블라시는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병사들은 그의 다리에 물집이 잡히는 와중에도 그를 구멍 밖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그레이트는 블라시 위로 뛰어올랐다.

갑자기 늘어난 무게 때문에 두 병사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구덩이 속으로 곤두박질쳤고, 안개를 뚫고 끔찍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나머지 병사는 미끄러져 내려오는 밧줄이 손 안쪽을 데는 듯한 고통을 주자 비명을 질렀다. 두 사제는 함께 허리 높이까지 차오른 안개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젠장, 추기경!" 본은 쓰러진 병사를 대신할 밧줄을 움켜쥐며 소리쳤다. 그는 여섯 명의 병사를 더 붙였다. "이 밧줄에! 당장!" 밧걸음이 허둥지둥 움직였다.

블라시가 그레이트를 밀쳐내는 순간, 밧줄이 더욱 팽팽해졌다.

사제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자욱한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블라시는 밧줄에 매달린 채 홀로 구덩이 벽을 타고 올라갔다. 병사들은 그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구멍 속으로 두 번째 밧줄을 던졌다. 블라시는 등을 대고 누워 허벅지를 움켜쥐었다. 옷의 다림질된 부분 사이로 검은 얼룩이 스며들었다. 그는 고통에 몸이 굳어지며 숨을 헐떡였고, 책 페이지는 여전히 그의 입에 꽉 물려 있었다. 한 병사가 그의 위로 무릎을 꿇고 그의 옷자락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나를 만지지 마!” 블라시는 얼굴을 찡그리며 소리쳤다.

클로디우스가 멀리서 소리쳤다. "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레이트 신부를 거기서 끌어내십시오! 그는 죽어야 합니다!"

본은 몸을 돌려 아르몬드에게 "움직이거나 말하면 당장 , 그는 클로디우스를 가리키며 “만약 저 사람이 놓아!"라고 소리쳤다.

구덩이 안에 갇힌 그레이트는 간신히 일어섰다. 그는 비틀거리며 더듬 거리고 기침을 했으며, 부식성 안개가 가슴까지 고르게 올라와 앞이 보이지 않았다. 본은 고향을 질렀다. "무능한 놈들! 앞을 못 본다고! 밧줄 좀 더 가까이 가져와 ! 어서 줘 !" 그는 병사들에게서 밧줄을 낚아채 구덩이 가장자리를 돌아 그레이트에게 소리치며 밧줄을 구멍 아래로 던졌다. "이쪽으로! 그래, 밧줄 쪽으로 걸어와! 그래, 계속 와! 내가 여기 있다!"

그레이트는 밧줄을 발견하고는 여전히 타는 듯한 안개에 숨이 막힌 채로 밧줄에 몸을 묶었다. "당겨!" 본이 뒤에 늘어난 병사들에게 소리쳤다. 모두들 뒤로 기대앉았다.

로프와 그레이트는 구덩이 벽을 타고 올라갔다. 안전한 곳으로 절반쯤 올라갔을 때, 그레이트의 팔 피부가 벗겨져 축축한 휴지처럼 구덩이 벽에 달라붙었다. 그의 꽉 쥐는 팔에서 살점이 굴러 나왔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밧줄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가 안개 속으로 다시 굴러떨어졌다. 본은 고리가 없는 밧줄 끝을 보고는 "다른 밧줄 가져와!" 라고 소리쳤다.

그레이트는 다시 한번 벌떡 일어섰지만, 턱만 안개 위로 드러나 있었다. 그러나 팔의 피부가 사라진 것처럼, 그의 귀 살점도 완전히 녹아 없어진 상태 였다. 이제 귀도 안 들리고 눈도 보이지 않는 그는 미친 듯이 구덩이 주위를 뛰어다니며 밧줄을 찾으려고 벽을 더듬었다. 그는 떨어졌다. 다시 일어섰다. 본은 다른 밧줄을 던지려다가 멈췄다. 그는 신부를 부르지 않았다. 부를 수가 없었다. 그는 움직이는 붉은 구체가 사람의 머리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레이트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그의 목소리는 매캐한 안개 때문에 끔찍하게 변해 있었다. 그리고 만약 노련한 군인들의 기억에도 영원히 각인될 만한 비명이 있었다면, 바로 그때 터져 나온 비명이었다.

제단에 묶여 있던 92명의 병사들은 그 높은 곳에서 구덩이 바닥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광경을 볼 수 없었다. 그들은 그저 산 채로 불타 죽어가는 사제의 절규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병사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으며, 숨은 가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며 내려올 명령을 기다렸다.

그레이트의 마지막 비명은 웅얼거리는 소리 정도로 희미해지다가 마침내 자욱한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본은 이제 쓰러져 있는 블라시에게 재빨리 다가갔다. 그는 옆으로 누워 고통에 몸부림치며 책장을 넘기고 시구 속에서 질서를 찾으려 애썼다. 본은 몸을 숙여 그에게 으르렁거렸다. "저 사람은 마치 양초처럼 녹아내렸어." "젠장, 네가 뭘 소환했든 간에!" 본은 블라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저게 네 축복받은 유령 군대인가? 검은 안개인가? 잘 들어라, 추기경! 네 손에 내 부하가 한 명이나 빠졌는데, 더 이상은 안 돼! 당장 여기서 일어나 네가 저지른 짓을 바로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 부하들을 시켜 구멍을 메워버리겠다!" 그는 밧줄에 묶여 있던 여섯 명의 부하들을 불러들여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그럴 순 없어!” 블라시는 썩썩거리며 항의했다. “돌을 닫으려면 정해진 구절들을 읊어야 해. 영혼들이 나타나 내가 크레시에서 영국군을 공격하도록 그들을 소환하기 전까지는 돌을 닫을 수 없어!”

“그럼 지금 당장 해라! 그 구절들을 읊어라! 보내면 내가 그 위에 돌판을 덮겠다!”

“소환할 정령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세요. 안개는 그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혹시 귀신을 본 적이라도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안개는 많이 봤어요!”

“나는 충분히 보고 들었다!” 본이 소리쳤다. “나는 그 석판을 닫아버릴 것이다. 시가 있든 없든 상관 없다!”

“내 말 좀 들어봐, 본!” 블라시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돌판을 구덩이 위로 끌어당긴다고 해서 돌이 닫히는 게 아니야. 돌을 돌판으로 덮는다 해도, 그 아래는 여전히 열려 있을 거라고. 오직 올바른 구절만이 그것을 닫을 수 있어!”

“네가 쓴 그 구절들을 찾아내든지, 아니면 내가 그 빌어먹을 석판을 닫아버리는 구절이 되어 버리겠다!”

“안 돼요! 돌을 재촉하면 안 돼요! 저를 재촉할 수도 없어요! 제발, 대위님, 저 좀 보세요! 고통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다시 책장을 넘겼다. “제발, 조금만 더요.” 그는 다리의 타는 듯한 고통에 거의 미쳐버릴 것 같았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신음했다.

“추기경님,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안개가 지금도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안개가 구멍 밖으로 새어 나오면 석판을 덮을 기회를 놓치게 될 겁니다. 부하들은 이미 자리를 잡았고, 지금은 제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자, 이제 추기경님께서 직접 나서시든지.”

“휘익!” 본은 구덩이에서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 쪽으로 몸을 돌렸다.

“제자리를 지켜라!” 그가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대장은 희미하게 불이 켜진 구멍을 살펴보았다. 주변의 모든 바닥 촛대의 불꽃이 꺼졌다. 차가운 바람이 움푹 들어간 곳에서 새어 나왔다. 제단 덮개 위에 걸린 태피스트리는 계속되는 바람에 나부꼈다.

“안 돼! 잡아!” 블라시는 바닥에 흩날리는 종이를 더듬으며 소리쳤다. 하지만 몇몇 종이는 바람에 휘말려 구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는 몸을 일으켜 헝클어진 종이 더미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선장님, 제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바람으로는 도저히 ”

본은 그의 말을 끊고 어깨 너머로 소리쳤다. “만약 당신이 실패한다면,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자네는 체포되었으니 나와 함께 파리로 돌아가서, 교회가 은밀히 숨겨온 이 끔찍한 만행에 대해 국왕 폐하께 보고하라.

블라시는 신음하며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구덩이에서 비틀거리며 나와 바람이 세차게 부는 구멍에서 책 페이지들을 들고 멀리 걸어갔다.

본은 구덩이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며 소리쳤다. “문지기들아, 너희는 내 횃불을 들고 와라! 너희는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물러나 안뜰에서 추가 병력을 데려와라. 너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문 각각 바깥 쪽을 무장한 사람 일곱 명씩 배치하라. 교회에 들어오려는 자는 누구든 베어 죽일 것이라고 전하라! 자, 출발!” 즉시 경비병들은 허둥지둥 움직였고 성당 문 세 개가 광 닫혔다. 본은 어깨 너머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르몽, 움직이는 모든 것을 주시해!” 그는 몸을 돌렸다. “빛줄을 맨 사람들아, 내 신호에 맞춰 일제히 당길 준비를 해라!”

그러자 본은 부러진 단검을 뽑아든 채 조심스럽게 구멍으로 다가갔다.

성당 건너편에서 그레빌은 뺨에서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한 후 바닥에서 눈을 들어 클로디우스를 향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그레이트 신부가 죽었는데, 아직도 교회 밖에서 질주하는 말 때문에 바닥이 흔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클로디우스는 그를 노려보며 팔짱을 끼고 기둥에 어깨를 기댔다. “입 조심해, 그레빌. 내가 직접 뒤에서 총을 쏘는 것 외에는 그레이트를 구할 방법이 없었어.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했지?” 클로디우스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게다가 우리는 그에게 그 구덩이로 내려가라고 강요한 적도 없어요.” 선택은 오롯이 그의 몫이었고, 그는 단지 추기경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런 짓을 저질렀을 뿐이다. 자, 이제 징징거리는 소리는 그만하고 목소리도 낮춰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총살당할지도 모른다고!” 클로디우스는 기침을 하며 구덩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들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레빌은 속삭였다. “지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촛대의 불꽃이 모두 꺼졌고, 잔잔한 바람이 느껴져.” 그는 클로디우스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경비병들이 문 앞에 없고 대장이 등을 돌리고 있을 때 교회 밖으로 몰래 빠져나가야 해.”

“저기 보이지?” 클로디우스는 기침을 하며 눈에 띄지 않게 성당 건너편을 가리켰다. “우린 문 앞까지도 못 갈 것 같군.”

그레빌은 클로디우스의 어깨 너머로 아르몬드가 자신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레빌은 클로디우스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가 우리를 계속 지켜보지는 않을 거야. 우리가 바닥에 앉으면 그가 돌아설지도 몰라."

클로디우스는 끈질긴 기침에 더욱 시달렸다. 그레빌은 눈꼬리로 교회 정면을 살폈다. 그는 눈을 굴리며 탈출할 만한 적당한 길을 찾기 위해 외벽을 샅샅이 훑었다. 그 너머 벽에는 돌 십자가가 있었고, 그 위에는 조각상이 걸려 있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조각상이 마치 느리게 움직이는 시계추처럼 흔들렸다. 그레빌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뒤로 물러선 후 "움직이는 게 보여?" 라고 외쳤다. 흔들리는 십자가를 가리키며 그는 여전히 손을 얼굴 앞에서 흔들며 기침을 하고 있는 클로디우스를 바라보았다. 그때, 새로운 각도에서 빛이 비추자 그레빌은 무언가를 발견했다.

기둥 윗부분에서 내려온 얇은 먼지층이 클로디우스 위로 깔렸다. 두 사제는 즉시 위를 올려다보며 먼지의 근원을 찾았다.

"접착제가 헐거워졌군." 클로디우스가 말했다. 그는 기둥에서 물러나 목을 가다듬고 높은 천장을 훑어본 후,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을 크게 뜬 채 천장 벽화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그레빌을 다시 쳐다보았다.

클로디우스는 시선을 따라 천장의 가장 높은 곳을 올려다보니, 마치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똑바로 응시하는 듯한 세 명의 왕의 초상화가 보였다.

클로디우스는 이마를 움켜쥐며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그저 벽화일 뿐이야. 조명 때문이거나, 아니면 먼지 때문일지도 몰라." 두 사제는 기둥들을 지나 교회 벽 쪽으로 물러섰다. 그레빌은 속삭였다. "말소사,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성당의 문 세 개가 열렸다가 광 닫혔다. 본은 구덩이 옆에 무릎을 꿇고 그 어두운 심연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햇불 열두 개를 든 병사 여섯 명이 그를 에워쌌다.

춤추는 햇불의 불꽃 아래, 그들의 머리카락과 옷은 잔잔한 바람에 흩날렸다. 구멍이 환하게 밝아지자 본은 벌떡 일어섰다. "후퇴!" 그는 부하들에게 소리치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선 후, 안전한 거리에 멈춰 서서 구멍 속 공간을 압도하는 문석의 놀라운 새로운 모습을 바라보았다.

흔들리는 햇불 빛과 차가운 바람 속에서 병사들의 입김에 김이 서렸다. 본은 소용돌이치는 기둥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작은 정지된 회오리바람처럼 보였고, 게이트스톤이 구덩이 바닥 중앙에 자리 잡은 자리에 서 있었으며, 게이트스톤보다 약간 더 높았다.

성당 바닥보다 더 깊었다. 검고 소용돌이치는 기둥의 꼭대기는 밑부분만큼 넓었고, 중심부는 비어 있는 듯했지만, 눈에 띄는 공허는 너무 어두워 안쪽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구덩이의 더 밝은 가장자리 근처에서 본은 한때 구멍 가장자리를 넘칠 듯했던 먹물 같은 안개가 이제 회오리바람에 서서히 빨려 들어가듯 구덩이 벽을 따라 더 깊숙이 가라앉으면서 물러가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흩어지는 안개 속에서 구덩이 바닥이 모습을 드러내며, 사제와 병사의 생명 없는 실루엣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본은

그는 햇불을 든 병사들을 불렀다. 거세지는 바람 속에서 햇불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본은 단검을 뽑아든 채 구덩이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들은 어둡한 구멍 가장자리 근처에 멈춰 섰다. 한 병사가 손전등을 높이 들고 가리켰다. 아래쪽으로. "캡틴, 아직 살아있습니다!" 본은 그림자 같은 형체들이 등을 대고 굴러떨어지는 것을 지켜 보았다. 두 그림자는 마치 번갈아 가며 회오리바람의 밑부분을 향해 굴러떨어지는 듯했고, 가까워질수록 더욱 빠르게 움직였다. 캡틴은 밧줄을 가져오라고 외치려던 찰나, 그것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깨달았다. 시체들은 바닥을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회오리바람은 그것들을 삼켜버렸다.

순식간에 회오리바람의 일정한 웅웅거림 속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커다란 진흙 덩어리가 서로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였다. 본은 뒤로 물러섰다. 그는 소용돌이의 가장 가까운 벽을 응시했다. 검고 불규칙한 형체들이 나타나 그 가장자리를 감싸며 회전하는 기둥 속에서 서로를 쫓는 듯 보였다. 검은 회오리바람의 매끄러운 가장자리는 어둡고 불규칙한 형태의 울퉁불퉁한 표면으로 바뀌었다. 그때 회오리바람에 여전히 붙어 있는 하나의 조각이 튀어나왔다. 튀어나온 부분은 느슨하게 완전히 펼쳐진 채 기둥 옆을 따라 빙글빙글 돌았다. 그 순간, 희미한 회오리바람의 흐릿한 모습 속에서 본은 날아다니는 것이 축 늘어져 흔들리는 팔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때서야 기둥 전체가 단단한 형태로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검게 그을리고 회전하는 신체 부위들의 모음.

본은 단검을 떨어뜨렸고, 단검은 바닥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듯 두 손을 번쩍 들고는 억지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근처에 있는 병사에게 말했다. "폐하께서 제게 평화로운 수도원에서 훌륭한 수도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풍족한 음식과 축복받은 수도원 포도주, 어쩌면 멧돼지 사냥과 병사들을 위한 구이 파티도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소—" 본은 병사의 조끼를 잡아당기며 노려보고는 빙글빙글 도는 행렬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 "도대체 저건 뭐지?!" 본은 말문이 막힌 병사를 밀쳐내고는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머리카락을 눈에서 치우며 성당 구석구석을 훑어보며 급히 원을 그리며 서성거렸다. "이제 그만! 추기경? 아르몬드, 추기경은 어디 있소?"

교회 건너편에서 아르몬드 하사는 팔로 눈물을 닦았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위에서 꾸준히 내려와 자신과 그의 부하 석궁병들을 뒤덮는 고운 먼지를 저주했다. "추기경님이 안 보입니다, 대위님." 아르몬드는 눈을 깜빡이며 부하들의 등에 얽은 석궁 두 자루를 다시 조정하 채 외쳤다.

광! 천장에서 커다란 돌이 떨어져 분대 바로 몇 피트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석궁병 두 명이 벌떡 일어섰다.

아르몬드는 앞으로 돌진하며 "내 손을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라고 으르렁거렸고, 석궁을 그들의 목덜미에 겨누었다. "자세로 앉아라." 병사들은 다시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밧줄에 묶인 병사들에게 무기를 겨누었다. 아르몬드는 두 활을 그들에게 겨누고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다른 곳에 있었다. 성당 건너편에 있는 두 수도사를 주시하고 있었다. 혹시라도 다른 사제를 놓쳐서 상관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클로디우스와 그레빌은 교회 문 쪽을 응시하며 초조하게 몸을 움직였다. 곧이어 그들은 고개를 돌려 아르몽이 석궁병 한 명에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을 발견했고, 무릎을 꿇은 병사는 수도사들을 향해 석궁을 휘둘렀다.

“그가 우리를 쏠 거야!” 그레빌은 클로디우스의 옷자락을 짊 움켜잡으며 소리쳤다.

클로디우스는 그를 꾸짖으며 말했다. “그렇지도 모르지 —바로 너 때문에!” 그는 그레빌을 밀쳐냈다. “네가 화를 참지 못하니, 이제 우리 둘에게 석궁을 겨누겠다.” 그는 콧방귀를 끼며 코를 천장으로 치켜들고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레빌은 불평했다. “여기 안전하지 않아! 아치형 돌들이 떨어지고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라니,” 클로디우스는 갑자기 중얼거리며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믿을 수가 없어.”

제단 위 높은 곳, 두 사제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곳에서 벽화 속 세 왕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머리를 마구 휘두르며 극심한 고통에 일그러진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움직이던 그들의 모습은 갑자기 멈춰 섰고, 입은 벌어지고 눈은 크게 뜬 채 클로디우스와 그레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얼어붙었던 그들의 얼굴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며 타들어 가기 시작했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그을린 페인트 조각들이 검은 눈처럼 바닥으로 흩날렸다. 그때서야 병사들은 고개를 들어 자신들을 덮은 재의 근원을 찾으려 애썼다.

클로디우스는 기침을 하고 손을 얼굴 앞으로 휘저으며 떨어지는 미세한 먼지 안개를 걷어내려 애썼다. 그러다 차가운 물에 빠진 뜨거운 바위가 갈라지는 듯한 날카롭고 평하는 소리의 원인을 찾으려 애썼다. 그리고는 그의 옆에 우뚝 솟은 거대한 기둥의 표면 전체에 퍼져 있는 균열을 발견했다. 그는 기둥에서 물러나 멀리서 기둥을 살펴보았다. 곡선형 표면을 따라 먼지가 소용돌이치며 쏟아져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갑자기 균열이 더 넓어지더니 커다란 돌덩이들이 기둥에서 떨어져 나와 성당 바닥에 귀청이 터질 듯한 굉음을 내며 쏟아져 내렸고, 성당 안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순식간에 그쪽으로 쏠렸다. 기둥 조각들이 먼지와 떨어지는 잔해 속에서 떨어져 나가자 클로디우스는 기둥이 무너지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드러난 부분이 보였기 때문이다.

깨지지 않은 돌이 거대한 돌조각 다리 옆면의 매끄러운 표면처럼 보였다.

돌덩이가 쏟아져 내리자, 승려는 떨어지는 바위 조각들 아래에서 거대한 조각상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렸다. 그 거대한 형체는 바로 그 사람이었다.

갑옷으로 무장한 거인이 긴 검을 움켜쥐고 있었다. 다른 한 손은 성당 지붕을 지탱하는 돌덩이 아래에 놓여 있었다. 얇은 갑옷 조각들이 겹겹이 쌓인 치마를 입은 그의 모습은 고대 로마 전사를 연상시키는 스파르타식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곡선형 판이 다리 아랫부분과 팔 윗부분을 덮고 있었고, 투구는 사방이 둥글었으며, 가장 윗부분은 위쪽으로 갈수록 뭉툭해지는 형태였다. 넓은 입술 사이에는 톱니 모양의 날카로운 이빨들이 줄지어 나 있었고, 이마 중앙에는 외눈박이 눈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레빌은 기둥들을 재빨리 지나쳐 성당 외벽에 바짝 붙어 웅크렸다. 그는 우뚝 솟은 키클롭스 조각상에서 시선을 떼고 눈가에서 포착한 기묘한 움직임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의 옆, 그리고 바로 위 벽에는 돌로 조각된 예수 의 십자가상이 걸려 있었는데, 그것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레빌은 예수 형상의 조각상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치 숨을 쉬려고 애쓰는 듯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다. 수도사는 신음하며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그는 벅찬 감정에 휩싸여 몸을 웅크리고 울면서 이 끔찍한 꿈에서 깨어나기를, 그리고 갑자기 고요한 기숙사 방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를 기도했다. 클로디우스는 본에게 소리치며 새로 세워진 키클롭스 조각상을 가리켰다. "저것 좀 봐, 대위! 제발, 미쳤나 봐! 당신 병사들은 저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당장 떠나야 해!"

하지만 본은 클로디우스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대위는 제단 밧줄을 잡고 있던 병사에게 소리쳤다. 그 병사는 이미 밧줄을 놓아버리고 대열에서 이탈한 상태였다. "자리를 이탈하지 마라! 당장 밧줄로 돌아가라!" 그러나 병사는 도망치듯 성당 문 쪽으로 달려갔다. 대위는 재빨리 몸을 돌려 "아르몽!" 하고 외쳤다.

갑자기 석궁이 평 소리를 내며 화살이 날아들었고, 남자는 등에 여러 개의 화살이 박힌 채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몸부림치며 숨이 막혀 숨을 거두었다. 그때 서야 본은 클로디우스를 가리키며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조용히 해, 사제! 조용히!"

본은 몸을 돌려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 귀 뒤로 넘겼다. 그는 햇불을 든 병사들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다. "나와 함께 구덩이로 다가가라! 바람에 불꽃이 번지지 않도록 막아라! 모두 모여 햇불을 계속 밝혀라. 불꽃 하나하나가 다음 불꽃을 밝히도록!" 그는 구덩이 가장자리에 가까워졌다. 기울어진 햇불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는 구덩이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금은 구덩이 둘레의 가장 윗부분까지 뻗어 있었다. 게다가, 그 균열은 문석에서부터 더 높은 성당 바닥을 지나 그의 발밑까지 퍼져 있었다. 본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안쪽으로.

구덩이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깔때기 같은 소리가 웅웅거렸고, 속도가 붙을수록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그 신음 소리 속에는 수많은 비명 소리가 점점 커져 마치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한데 모인 듯한 소리를 냈다. 마치 고통받는 수천 명의 영혼들이 포효하는 합창단 같았다.

본은 "추기경은 어디 있느냐?" 라고 외쳤지만, 그의 시선은 눈앞에 펼쳐진 검고 웅웅거리는, 압축된 신체 부위의 괴물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명령했다. 그가 구덩이에서 병사들을 밀쳐내는 동안, 그의 햇불을 든 사람들은 소음 속에서 "쓰러져라!"라고 외쳤다.

뒤로! 너희 셋을 제외한 모두는 —그곳에 불빛을 비추어라. 너희 둘, 이 교회에 햇불이 더 필요하다! 확인해라! 그리고 너, 밧줄에 매 달려라!” 그는 아르몬드에게 소리쳤다. “준비!” 그러고는 그들 뒤로 돌아가며 부하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내 신호에 맞춰, 석판을 달아라! 전처럼 가지런히 정렬해라! 같은 속도로 움직여라! 그리고 너희 중 누구라도 내게 고개를 드는 것을 보면—” 그러나 대장은 입을 다물고 천천히 구덩이 쪽으로 몸을 돌려 소용돌이치는 검은 살덩이 기둥의 중심에서 천천히 솟아오르는 매끄럽고 붉은 형체를 응시했다.

~*~

성당 건너편에서 클로디우스는 그레빌을 버리고 교회 문 쪽으로 도망치려던 찰나, 석궁에서 발사된 화살이 바위벽에 박혔다.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다.

클로디우스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갑자기 물러나 도망칠 생각을 다시 해야겠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는 여전히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그레빌에게로 물러섰다. 멀리서 그는 석궁병이 활을 재장전하고 자신에게 다시 겨누는 것을 발견했다. 클로디우스는 거대한 키클롭스 석상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그레빌에게 다가갔다. 석상은 고개를 숙인 채 마치 돌로 된 외눈을 깜빡이지 않고 사제를 응시하는 듯했다.

클로디우스는 그레빌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정신 차려. 내가 네가 탈출하는 걸 도와주려면 넌 강해져야 해."

그레빌은 몸을 일으켜 눈물을 닦았다. "그래, 여기서 나가야겠어. 나도, 나도, 그래, 우리는 떠나야 해." 그레빌의 멍한 눈은 교회 안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 이리저리 굴러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아주 다른 시각으로 발견하는 듯했다. 그는 중얼거렸다. "피곤해. 기숙사로 돌아가서 아침 기도 전에 좀 쉬어야겠어."

"정말 그렇습니다." 클로디우스는 그레빌의 어처구니없는 제안에 동의했다. 그들이 처한 끔찍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생각으로 수도사를 더욱 겁먹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이제 떠날 시간입니다. 아침 기도 전에 평화와 안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레빌은 클로디우스를 올려다보았지만, 그의 시선은 클로디우스의 어깨 너머 저 멀리 천장으로 향했다. 그의 멍한 시선은 넓게 펼쳐진 프레스코화의 소용돌이치는 형상들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날개 달린 악마들이 천사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았다. 날아다니는 악마들이 푸른 불꽃의 원을 뚫고 들어가 칼을 높이 치켜들고 얼굴 없는 세 왕의 목을 베는 모습을 보았다. 멍한 상태로 그레빌은 힘없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천장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을 체념하듯.

클로디우스는 그레빌의 뺨을 찰싹 때렸다. "날 봐! 지금 당장 출발하자! 내가 적절한 순간이 되면 성당 문으로 전속력으로 달려가라.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지 마라! 계속 달려!" 문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제가 바로 뒤따라가겠습니다. 저를 잡으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넘어졌었군. 하지만 다시 일 어설 수 있어. 이제 떠날까?" 그레빌은 클로디우스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달라고 부탁하며 물었다. 그때 뒤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두 사람은 일제히 뒤돌아보았다. 커다란 돌 십자가가 벽에서 떨어져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산산조각 난 십자가의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파편들이었다. 하지만 흩어진 파편들 중 어느 것도 원래의 어떤 부분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예수의 조각상이었던 이 조각상은 부서진 조각 하나하나가 한때 조각된 돌 십자가의 일부였기 때문에, 마치 예수의 조각상과 같았다. 클로디우스는 손을 맞잡고 그레빌을 일으켜 세우려던 순간,

“쉬익!” 클로디우스의 등 뒤에서 화난 고양이처럼 날카로운 침 뱉는 소리가 났다. 클로디우스가 획 돌 아서는 순간 그레빌도 뒤로 움찔하며 두 수도사는 바닥에 쿵 떨어졌다. 그들은 눈을 크게 뜨고 멍하니 앉아 있었고, 성당의 바람에 수도복이 펄럭였다.

그들은 어떤 성직자라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혐오스러운 형체를 마주 보았다. 그들 앞에는 이전에 조각된 십자가에 붙어 있던 돌 조각상이 서 있었다. 이제 그것은 떨어져 나와 작은 개만큼이나 큰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 몸은

그것은 자칼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바늘처럼 뾰족한 이빨을 제외하면 머리는 변함없이 이전에 조각된 예수의 모습 그대로였으며, 가시 면류관까지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앞발은 서로 떨어져 똑바로 서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기괴한 석상은 뒷발을 바닥에 대고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마치 못으로 박힌 듯 예전 돌 십자가의 커다란 잔해에 붙어 있었다. 기괴한 석상은 뒤로 꺾인 뒷다리와 여전히 붙어 있는 돌덩이를 질질 끌며 그들을 향해 기어왔다. 클로디우스와 그레빌은 다가오는 석상에서 황급히 도망쳤다.

“으르렁!” 거대한 외눈박이 거인의 우렁찬 목소리가 성당 내부를 가득 채우며 모든 소리를 잠시 덮어 버렸다. 클로디우스는 거인이 커다란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거인은 천장에서 손을 떼고 다른 손으로 거대한 검을 들어 올린 후, 기둥의 뾰족한 받침대에서 내려오기 시작했다. 두 사제는 벌떡 일어나 벽을 향해 달려갔다. 돌로 된 거인은 샌들을 신은 발로 성당 바닥을 내리찍었고, 발꿈치 아래부터 돌바닥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지붕의 돌과 먼지가 움직이는 거인상 위로 쏟아졌다. 갑자기 성당 지붕의 지지대가 없는 부분이 무너져 내렸고, 굉음과 함께 거대한 잔해 기둥이 거인상 위로 떨어졌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키클롭스 조각상은 산산조각이 나더니, 자갈과 돌멩이가 사방으로 쏟아져 바닥에 떨어졌다. 거대한 먼지 기둥이 바닥을 뒤덮었고, 바람에 휩쓸려 사방으로 흩어져 성당 전체를 가렸다. 바닥에는 돌로 된 자칼 형상이 부서진 십자가 조각을 질질 끌며 이리저리 움직였다. 그것은 성당 중앙을 향해 돌진 하더니, 반쯤 닫힌 구멍이 속으로 뛰어들었다. 마치 굶아 터지는 역병처럼, 지옥이 성당을 집어삼키듯, 어떤 성상도 남김없이 삼켜버렸다. 그리고 그 불가사의한 순간은 점점 더 끔찍해지는 악몽으로 변해갔다.

“끌어당겨!” 본 대위가 소리쳤다. 병사들이 잡아당기고 밧줄이 늘어나는 동안 제단 석판은 갈라진 바닥에 굴리며 앞으로 더 미끄러져 나갔다. 휘몰아치는 바람과 휘몰아치는 먼지 속에서 병사들은 거의 귀머거리, 눈먼 상태로 서 있었다. 구멍의 3분의 1이 천천히 밀려오는 석판 아래 묻히면서 바닥의 점점 넓어지는 틈에서는 쇠소리가 났다.

차가운 안개가 뿜어져 나왔다. 한 남자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본은 곧바로 적진 사이의 빈자리와 바닥에 난 커다란 균열을 발견했다. 그 균열에서는 안개와 얼음 결정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적진 사이로 뛰어들어갔다. 그는 돌바닥에 벌어진 갈라진 틈을 뛰어넘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지옥의 심연까지 이어지는 듯한 깊은 틈 속에서 쓰러진 병사를 찾을 수조차 없었다. 그는 불꽃 없는 횃불을 들고 있는 나머지 병사들에게 소리쳤다. "당장 대열 뒤로 모여라! 우리 중 한 명이 쓰러지면, 그 자리를 즉시 맡아라!" 그는 맞은편 벽을 향해 돌아섰다. "아르몽, 지휘할 준비를 해라!" 병사들이 횃불을 떨어뜨리고 구덩이에서 허둥지둥 빠져나가는 동안, 본은 바닥의 갈라진 틈 위로 올라갔다. 그는 쓰러진 병사를 대신해 밧줄에 몸을 묶고 밧줄에 매달린 모든 병사들에게 경고했다. "우리는 한마음으로 당기고 한마음으로 죽는다!"

“끌어당겨!” 본이 외쳤다. 푸르스름한 손가락 마디가 밧줄을 꼭 움켜쥐었다. 떨고 있는 병사들은 신음 소리를 내며 몸을 떨었다. 제단이 다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회전하는 기둥에서 쏟아져 나오는 얼음 조각들이 병사들을 마구 때렸다. 병사들은 먼지로 뒤덮여 젖고 더러워졌으며, 몇몇은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서리가 내린 수염 아래에는 모두 격렬한 전투의 열기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한 표정이 역력했다.

“힘내라!” 순식간에 성당 전체를 뒤덮었던 먼지 안개가 흩어지는 가운데, 대장은 점점 더 모습을 드러내는 수도승의 성배에서 빛나는 환영들이 연이어 뿜어져 나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환영들은 시체의 입에서 하나씩 차례로 튀어나왔고, 각각은 이전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빠져나갔다. 마침내 시체의 목구멍이 격렬하게 펄럭이며 트림을 하듯이 갈라졌다. 순식간에 수도승의 머리와 목이 어깨와 맞닿을 정도로 사방으로 터져 나왔는데, 마치 빠르게 익어가는 육질의 꽃처럼 보였다. 머리가 없는 몸통에서 찬란한 영혼의 기둥이 위로 솟구쳐 오르며 비명을 지르고 고통쳤다. 성당의 높은 곳은 빛나는 반투명 형체들로 가득 찼다. 곳곳에서 환영들이 천장, 벽, 바닥에서 사라졌다 다시 나타났고, 성당 전체는 기이한 빛으로 반짝였다.

제단 석판은 거대한 돌이 프라이어 그레이트의 시신 위로 굴러떨어지면서 짧은 간격으로 미끄러졌고, 무거운 돌이 굴러떨어질 때마다 살점이 벗겨진 몸통이 휘어졌다. 그 엄청난 무게에 척추가 부러질 때까지 시체는 더욱 뒤로 밀려났다. 시체는 뒤집히며 옆으로 심하게 꺾였다. 이 끔찍하고 부자연스러운 각도에서, 펄럭이던 머리의 잔해가 뜯겨져 나가더니, 아래에서 굉음을 내며 솟구치는 검은 기둥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갑자기 목구멍의 영혼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멈췄지만, 벌어진 목구멍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목구멍에서 나오는 듯한 신음 소리가 제단 석판이 밀어붙여질 때마다 울려 퍼졌다. 그러나 뒤틀린 잔해는 결국 미끄러져 내려오는 돌 아래로 사라졌다. 마침내, 그 순간 영원처럼 느껴졌던 그 굉음은 서서히 잦아들었고, 바람도 잦아들었으며, 먼지도 가라앉았다. 그리고 쿵 하는 소리가 성당 바닥을 뒤흔들었다. 제단 석판이

이제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된 본과 그의 부하들은 마침내 구덩이를 덮었다. 바닥에서 낮은 굉음이 계속 울려 퍼졌는데, 이는 제단 덮개돌 아래에서 새까맣게 탄 시신 조각들이 여전히 소용돌이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블라시 추기경은 문석을 열어 영혼 군대를 풀어놓는 데 성공했지만, 크레시에서 영국군을 공격 하도록 영혼들을 보내는 데 필요한 나머지 구절을 낭송할 기회를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목적 없이 떠도는 유령 무리는 아무런 지시나 명령 없이 천장을 맴돌기만 했습니다.

종류.

"빌어먹을, 추기경!" 본의 목소리가 고요하고 어두운 공간에 울려 퍼졌지만, 그 울림은 여러 메아리 속에 금세 사라졌다.

~*~

교회 밖, 수도원 경내를 가로질러 오디오노는 상록 관목 사이로 주위를 살폈다. 네 명의 병사가 이반의 축 늘어진 시신을 지하 묘지 정문 밖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자, 그는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며 무릎이 주저앉을 뻔했다. 병사들은 시신을 목욕탕으로 옮겨 외벽 옆에 놓았다. 오디오노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나사로를 떠올렸다. 그는 안뜰에 모여 교회에 완전히 시선을 고정한 병사들을 유심히 살폈다. 병사들은 성당 지붕을 뚫고 나타나는 빛나는 형체들을 가리키고 있었다. 노랗게 빛나는 형체들은 교회 첨탑 주위를 맴돌며 높이 쌓인 돌 조각상들 사이를 쫓았다. 마치 등지를 틀 자리를 놓고 다투는 비둘기 떼처럼 떼 지어 날아다녔다.

지하 묘지에서 라자로를 찾지 못한 본의 병사들은 지상으로 돌아와 안뜰로 발을 내딛자 성당 위쪽에서 빛나는 영혼들이 안개처럼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초현실적인 광경에 홀린 경비병들은 동료들과 함께 오디오노가 숨어 있는 덩굴 쪽으로 모여들었고, 수도승은 이때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디노는 덩굴에서 빠져나와 지하묘지 건물의 측면 출입구로 빠져나갔다. 그는 긴 복도를 따라 달려가 모퉁이를 돌아 귀를 대고 소리를 들었다.

쇠관으로 묶인 나무로 된 지하묘지 입구 문.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안쪽에는 아무도 지키고 있지 않았다. 여전히 눈에 띄지 않게, 그는 어둠한 계단을 따라 내려가 복도를 빠르게 지나갔다.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며 땅속 깊이, 그리고 우물 구멍 외에는 아무 데도 이어지지 않는 막다른 통로로 향하는 길을 따라 내려갔다.

우물 구멍에 도착한 오디노는 어두컴컴한 구멍 속으로 햇불을 들이밀며 속삭였다. "나사로?" 하지만 방은 텅 비어 있었고, 바닥의 넓은 도랑을 통해 흐르는 지하 샘물의 졸졸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오디노는 발걸음을 옮겼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몸을 질질 끌며 방 저쪽 끝으로 가서 여러 개 중 하나를 집어 들었다. 벽을 따라 늘어선 나무 물통들. 그는 도랑으로 다가 가 돌바닥에 물통을 두드렸다. "나사로? 어디 있느냐? 오디노 수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햇불을 도랑 위로 넘겨 물속을 살폈다.

오디노는 양동이를 바닥에 내던졌다. 양동이가 산산조각 나자 오디노는 "나사로, 나오너라!" 라고 고함을 질렀다. 순간, 땅속 개울의 표면이 갈라지며 흠뻑 젖은 나사로가 솟아올랐다. 나사로는 수 세기 동안 침식 작용으로 만들어진, 바닥 아래 작은 동굴, 공기로 가득 찬 공간에 숨어 있었다. 다행히도 그 동굴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단 다섯 명뿐이었다. 나사로, 오디노, 나사로가 신뢰하는 두 명의 기형적인 기사 미겔과 타테우스, 그리고 지금 그 옆에 누워 있는 건장하고 은발의 수도승이었다.

목욕탕은 영원히 침묵에 잠겼다.

“아버지는—?”

“그래. 이반은 세상을 떠났지만, 라자로야, 그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여기.” 오디노는 라자로의 가슴을 두드리며 대답했다. 그는 침을 꿀꺽 삼켰다. “자, 내 말 잘 들어라, 애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서둘러 떠나야 해!” 그는 양동이의 남은 조각들을 내던지고 라자로의 내민 손을 잡고 그를 물 밖으로 들어 올렸다. 라자로는

라자루스는 허리띠에 매달린 마스크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자, 오디노가 마스크를 빼앗아 시냇물에 던지자 마스크를 꼭 쥐었다. “그럴 필요 없어. 네 세상은 이제 달라졌어.” 라자루스는 빠른 물살이 마스크를 휩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다. 그리고

얼굴 가리개는 벽의 낮은 구멍으로 빠져나가 땅 아래 어두운 물속으로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

그들은 우물 구멍에서 도망쳐 나와 구불구불한 터널을 따라 질주했다. 그들 앞에서 육중한 수도사는 활활 타오르는 햇불을 어둠 속으로 내밀었고, 그들 뒤로는 조각된 천장에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라자루스의 젖은 옷자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터널 깊숙이 흘러내렸다. 수도사의 어깨 너머로, 소년들의 커다란 눈동자에 비친 모습은 흔들리는 햇불 불빛에 비쳐 마치 빛나는 노란 원반 두 개처럼 보였다. 라자루스는 걸음을 재촉했고, 젖은 옷자락이 펄럭이며 오디노 옆에 섰다. 그는 오디노에게 물었다. "수도사님, 왜 문석이 비명을 지르는 겁니까?"

오디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른 후, 손전등을 푸른 눈동자 한 쌍에 비쳤다. "비명? 어떻게 비명을 지르는 거지?"

“들립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도 저 멀리서 들려옵니다.” - 나사로 터널 암벽의 가장 높은 곳을 가리켰다.

오디노는 라자루스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소년이 성당, 즉 성당의 심장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도사는 소년을 꾸짖었다. "꼬마야, 더 이상 그런 악담은 듣지 않겠다! 조용히 해라, 안 그러면 들킬 것이다!" 그들은 다시 터널을 따라 달려갔다.

그들은 지하 묘지의 미로 같은 통로를 서둘러 헤쳐 나갔다. 마침내 오디노는 소년들의 방으로 들어가더니 신 목소리로 “젖은 옷 좀 벗어!” 하고 입구 벽에 털썩 주저앉았다. “새 옷 있어?”

"침대 밑에 숨겨 뒀어요."

“그럼, 어서 가져가세요. 저는 거기까지 몸을 굽힐 수가 없어요! 다른 후드티 있나요?”

"수도사님께서 제게서 가져가신 그 하나뿐입니다."

“상관없어. 어서 옷을 벗고 입어.” 오디노는 방 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중앙 복도를 따라 올라갔지만, 칠흑 같은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라자로가 숨어 버린 탓에 아무도 지하 묘지의 햇불을 다시 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디노는 경계를 서며 미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멀리서 새어 나오는 햇불의 희미한 빛을 살폈다.

오디노는 돌아보니 라자로가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옷으로 가득 찬 나무 상자를 놓고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무슨 일이나, 꼬마야?” 오디노가 췌 소리를 내며 말했다.

라자로는 상자 가장자리에 손을 얹었다. "내겐 새 후드가 있어. 그리고 두 개 더."

"더 있어요. 하나는 미겔에게, 다른 하나는 타테우스에게 줄 거예요."

“어서 시작해, 라자루스! 아직 때가 아니야!” 오디노는 햇불을 들고 앞으로 달려나갔다.

상자에서 가운데와 가면을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다.

나사로는 얼굴을 닦고 벌떡 일어나 재빨리 옷을 벗었다. 오디노가 그 뒤를 이었다.

한 손으로는 침대 위를 맴돌며 다른 한 손으로는 옷을 정리했다. 소년은 원을 그리며 서성거렸다.

가슴을 움켜쥐고 옷을 벗은 채 떨고 있는 라자루스. 그의 가느다란 몸은 배에 배꼽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제외

하면 거의 모든 면에서 또래 남자 아이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그러나 수도원 사람들, 즉 시종, 수도사, 그리고

수도원장 모두 가 짐작했던 것처럼 라자루스와 다른 시종 소년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굵은 등이 아니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의 척추는 건강한 소년들처럼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다. 단연코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바로...

나사로에게는 살과 뼈로 이루어진, 접힌 막 같은 날개 한 쌍이 있었다고 한다.

나사로는 날개를 펼쳐 재빨리 물기를 털어냈다. 그는 날개를 다시 등 뒤로 접어 올리고는 옷을 팔뚝에 걸친 채 찡그린 얼굴로 오디노를 찾아 나섰다. 그의 이마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용서해 주십시오, 수도사님.” 라자루스는 시선을 아래로 떨구며 말했다.

오디노는 라자루스의 침대를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침대보로 몸을 닦으세요."

나사로는 그렇게 했고, 오디노는 팔을 내밀며 말했다. "이제 옷을 입으십시오."

소년이 옷을 입을 동안, 오디노는 침대 위에 걸쳐진 또 다른 옷 한 벌을 보여주었다. 가운, 허리띠, 두건, 그리고 발에 끼는 장갑 두 켤레가 포함되어 있었다. "밤 공기가 차가우니, 두 옷을 겹쳐 입어야 한다. 어서 서둘러 입으렴!"

오디노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고는 문간으로 달려가 라자루스가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망을 보았다.

"잘 들어라, 라자루스. 우리는 지하 묘지를 떠날 것이다. 하지만 수도원 경내에는 많은 병사들이 있으니,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우리를 막을 것이다."

"우리의 탈출이야. 어둠이 우리를 감싸고 있지만, 우리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을 거야. 바람처럼 움직여야 해." 오디노는 기침을 참으며 라자로를 바라보았다. "내 말을 이해하겠느냐, 꼬마야?"

"그렇습니다, 수도사님. 하지만 내일이 될 때까지 만이라도 지하 묘지에 숨어 있는 게 어떨까요?" 라자루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안했다. 수도사는 그의 표정을 살폈다. 소년이 마스크를 머리에 쓰기 직전,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오디노는 라자루스가 수도원 필사실의 책에서 얻은 정보 외에는 지하 묘지 밖 세상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라자루스는 후드 끈을 단단히 조이며 덧붙였다. "군인들이 여기서는 우리를 발견하지 못할 거야. 베니온 터널 안에 빈 벽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

오디노는 방을 가로질러 걸어가 소년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안 돼!"

자네는 이제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네! 지하 묘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햇불을 켜거나 끌 필요도 없고, 포도주를 만들 필요도 없고, 벽과 바닥을 청소할 필요도 없네. 이제부터 자네가 따라야 할 명령은 오직 자네에게서 직접 내려오는 명령뿐이네. 자네는 그 명령에 따라 살거나 죽게 될 것이네! 나사로, 절대 착각하지 마시오!

"나는 수도사가 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예외는 없어, 나사로. 네 목숨이 달린 문제란다!"

나사로는 어깨와 고개를 떨구고 말없이 서 있었다.

오디노는 그를 놓아주고 한숨을 쉬었다. "이번엔 또 뭐야?"

"저는 두렵습니다, 수도사님."

오디노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는 게 좋을 겁니다!" 사제는 천장을 가리켰다. "저 위에 있는 자들이 당신을 잡으면 죽일 겁니다. 두려움이야말로 당신이 살아남는 조건입니다. 두려움은 좋은 것입니다." 그는 햇불을 흔들었다. "두려움은 당신의 친구이니, 절대 시험하거나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오디노는 침대에서 두 번째 가면을 꺼냈다. "자, 이제 그 위에 또 다른 두건을 씌우고, 두 가면 위에 세 번째 발 장갑을 씌우십시오. 당장!" 오디노는 갑자기 일어나 문간으로 돌아갔다.

오디노가 훈계하는 동안 라자로의 서둘러 옷을 입었다. "너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다. 이제 어른이다. 그렇지?"

"네, 수도사님." 라자루스는 투덜거리며 첫 번째 가면 위에 두 번째 가면을 씌우고 발에 끼는 장갑을 하나 더 집어 들었다.

"그렇다면 내 이름을 기억해 보아라. 내 이름이 무엇이지?"

"당신의 이름은 델론 오디노 수사님이시군요."

"아니야! 잘 들어라. 나사로라는 소년은 더 이상 없다. 그는 어른이 되었다. 그의 말투와 행동거지는 그의 아버지를 닮았다." 오디노가 손바닥으로 벽을 내리치자 나사로는 깜짝 놀라며 재빨리 가면의 검은 눈구멍을 수도승 쪽으로 돌렸다. "이제 당신은 이반이다! 이반이라고! 자, 다시 대답해 보아라. 이번에는 이반처럼. 내 이름은 무엇이야?"

"오디노," 라자로의 발에 낀 장갑에 시선을 고정해 대답했다.

"잘했어." 오디노는 짧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 밤, 너는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거야."

아버지. 당신은 그분에게서, 당신 내면에서 힘을 끌어내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영적으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오디노는 자신의 가슴을 두드렸다. “여기, 당신의 마음속에.” 오디노는 옷자락 아래 숨겨진 작은 물건을 만지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 그렇습니다. 그분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음 여기 꼭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사제는 다른 손으로 가죽 끈 목걸이를 꺼냈다.

그의 목에 걸린 가느다란 끈에는 작은 나무 십자가가 매달려 있었는데, 라자로는 그것이 이반의 기도 십자가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오디노는 소녀에게 다가가 목걸이를 그의 머리에 돌려주고 십자가를 옷 속에 넣어주었다. "자, 이제 너는 이반이야. 그리고 이반은 절대 울지 않지, 그렇지?"

라자루스는 오디노를 올려다보았고, 그의 푸른 눈은 햇불 빛에 반짝였다.

그의 마스크에는 구멍이 나 있었다.

“아니, 프리아—아니, 오디노,” 라자루스가 대답했다. “나는 옷을 입었어.”

“그럼, 가자.” 오디노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이 수도원에서 서둘러 도망쳐 나와 영원히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거라. 병사들이 나를 잡더라도, 너는 뒤돌아보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 나 혼자서는 죽지 않겠지만, 너까지 잡으면 우리 둘 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너는 네 정체 때문에, 나는 네 탈출을 도왔기 때문에.” 오디노는 눈을 가늘게 떴다. “내 목숨이 네 손에 달렸다.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 라자루스.”

나사로는 옷 속에 숨겨둔 작은 물건을 문지르고 어깨를 펴고 일어섰다.

“안 그럴 거야—오디노.”

오디노는 불붙은 햇불을 침대 위에 던졌고, 불길은 순식간에 이불을 집어삼켰다. 연기가 바위 천장에 부딪히며 복도로 퍼져 나갔다.

라자루스는 나람신이 보낸 편지와 그 편지에 빼곡히 적힌 수많은 기호들을 떠올렸다. 그는 앞으로 달려나가 매트리스 속 짙더미에 팔을 쭉 내밀었지만, 아무 종이도 찾지 못했다. 오디노가 그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저 안에 두루마리 종이가 있었는데!” 나사로는 불타는 침대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건 없어졌어.”

“그냥 놔둬.” 오디노는 라자루스의 머리를 불길에서 돌려세우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필요한 건 다 갖췄어. 자, 내 말을 잘 들어. 만약 우리가 발각되면, 우물 구멍으로 돌아가서 그 아래 동굴에 숨어야 해.”

바닥은 전과 같습니다. 어둠과 연기가 당신을 뒤덮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겠습니다.” 라자루스가 대답했다.

승려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마의 땀방울을 닦았다. "그럼, 바람처럼 떠나보자." 그는 쉿 하는 소리를 내며 말했다.

오디노는 문 근처에서 귀를 기울인 후, 라자로를 데리고 어두컴컴한 복도를 서둘러 올라갔다. 그들 뒤로 활활 타오르는 불길의 불빛이 희미해지면서 복도의 주요 특징들이 짙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오디노는 밤늦게 와인 저장고로 향할 때면 늘 그랬듯이, 어두운 터널을 헤쳐 나갔다. 그는 손가락으로 벽을 더듬으며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표식을 찾았다. 라자로는 그가 복도 중앙을 걸어가는 동안 그의 바로 뒤에서 따라갔다.

소년은 빠르고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통로를 걸어갔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소년의 위풍당당한 걸음걸이는 마치 아버지의 걸음걸이와 똑같아 보였다. 땅을 뒤흔드는 듯한 길고 힘찬 발걸음이었다. 수도승과 기사는 함께 모퉁이를 돌아 복도 끝의 희미한 불빛을 향해 서둘러 걸어갔다.

마침내 터널은 높은 공간으로 이어졌고, 넓은 계단이 돌로 된 층계참으로 향했다. 층계참 위에는 쇠고리가 묶인, 경비가 없는 나무 문이 있었는데, 그곳은 수도원 지하 묘지의 입구였다. 지하 묘지 계단 아래쪽에는 희미하게 떠오르는 햇불이 마지막 불꽃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다. 햇불에서 붉은 불씨가 바닥으로 떨어져 꺼졌다. 오디노는 계단을 따라 반쯤 올라갔을 때, 라자루스가 더 이상 자신을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희미해져 가는 햇불 아래 서서 무언가를 intently 바라보고 있는 소년을 발견했다.

바닥을 응시하던 소년을 보고 사제는 한숨을 쉬며 계단을 내려갔다. 그때서야 사제는 소년이 왜 멍하니 있었는지 알아차렸다. 라자루스는 바닥을 응시하며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이반의 혈관을 타고 흘렀던 핏자국을 자세히 살펴 보았다.

“지금은 안 돼!” 오디노는 그의 팔을 붙잡고 함께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수도사는 지하 묘지 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문을 활짝 열었다. 문을 박차고 복도로 돌진했다. 그러나 모퉁이를 돌기도 전에 그는 어깨 너머로 문턱에 꼼짝 않고 서 있는 소년을 보았다. 마치 라자루스가 거대한 심연의 가장자리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듯한 모습이었다. 오디노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서 라자루스를 향해 손짓했다. “지금 당장!”

라자루스는 심호흡을 하고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그는 오디노에게 바짝 붙어 수도승의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잘했어. 자, 가까이 있어.” 오디노는 그를 확 잡아당겼다. 라자루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오디노는 그의 가쁜 숨소리를 듣고는, 걸음으로는 감춰진 가면 아래 감춰진 공포에 질린 눈빛을 떠올렸다. 그때 갑자기 옆방에서 무언가가 들려왔다.

복도에서 문이 쿵 닫혔다. 다가오는 군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힘내, 라자루스!” 오디노는 무거운 짐을 끌고 복도를 걸어가며 소리쳤다. “서둘러!” 그는 어깨 너머로 소년에게 속삭였다. 라자루스를 바짝 따라잡은 두 사람은 소음이 나는 곳에서 멀리 달아났다.

두 사람은 건물 옆문으로 뛰쳐나와 수도원 벽을 따라 늘어선 키 큰 상록수 덤불 뒤에 몸을 숨겼다. 차가운 공기와 희미하게 밝아오는 달빛이 그들의 가쁜 숨결 위로 짙은 안개를 드리우는 가운데, 그들은 그곳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대성당 쪽에서는 병사들의 언쟁 소리와 간간이 들려오는 명령 소리가 들렸다. 밤공기는 온갖 소리로 가득 찼다. 말의 쿵김 소리, 군화 발굽 소리, 문 쿵 닫히는 소리, 금속 부딪히는 소리까지— 마당은 분주한 군대의 소음으로 활기가 넘쳤다. 오디노

오디노는 라자루스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둘은 울타리 뒤의 좁은 공간을 옆으로 비켜가며 벽에 등을 기댄 채 나아갔다. 수도원의 남쪽 문을 향해 조용히 조금씩 전진하는 동안, 병사들의 대화 소리가 발걸음을 옮길 때 마다 점점 더 커졌다. 오디노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라자루스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손짓했다.

수도사는 조심스럽게 덤불을 헤치고 안뜰에 서 있는 네 명의 병사를 발견했다. 열려 있고 경비가 없는 수도원 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들은 등을 수도사에게 돌린 채 멀리 있는 성당 지붕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위로 는 빛나는 환영들이 떼 지어 몰려들고 있었다. 수도사는 다시 한번 라자루스를 잡아당긴 후, 덤불 끝을 헤치고 탁 트인 공간으로 발을 내디뎠다. 병사들이 그대로 서 있는 동안, 오디노는 덤불 뒤에서 라자루스를 끌어내어 문 안으로 재빨리 밀어 넣었다. 소년은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무사히 빠져나갔고, 운명의 장난처럼, 바로 그 악으로부터 벗어났다.

나사로는 군인들에게 발각되어 죽임을 당할까 봐 목숨을 걸고 숨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군인들의 주의를 분산시켜 탈출할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동이 트는 달빛 아래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그들은 비탈길을 따라 내려가 바위와 십자가가 줄지어 있는 짧고 마른 풀밭, 곧 수도원 묘지를 향해 날아갔다. 두 사람은 흙더미를 넘고 묘비 사이를 재빨리 지나 묘지 끝까지 갔다. 오디노는 사람 키만 한 바위 뒤에 숨어 순찰하는 병사들의 시야에서 라자루스를 낚아챘다.

그들은 그곳에 숨어 모든 것을 숨겼다. 오디노는 바위에 기대어 숨을 헐떡였다. 라자로는 그의 곁에 서서 거의 모든 곳을 동시에 둘러보았다. 풀밭, 묘비, 멀리 보이는 언덕, 떠오르는 붉은 달, 그리고 수많은 별이 빛나는 드넓은 하늘을 훑어보았다. "마음에 안 들어." 그가 말했다. "세상은 너무 커."

오디노는 숨을 들이쉬고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저녁이 지나가기 전까지 그것은 더욱 커질 것이다."

나사로는 몸을 돌려 물었다. "지금보다 더 심해졌다는 말인가?" 수도사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신음하며 말했다. "이건 절대 안 되겠군. 식량을 구해와야겠어." 그는 소년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아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이용하면 기숙사는 물론이고 수도원까지도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을 거야. 문지기들이 한눈팔고 있는 동안에는 말이지."

"우리는 탈출했어요! 안전해요!"

"안 돼, 나사로. 우리는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도 하루 이상 걸어야 하고, 햇볕을 피할 만한 적당한 숙소까지도 반나절은 더 가야 해. 게다가 우리에게 입고 있는 옷 외에는 앞으로 며칠 동안 필요한 식량이 아무것도 없어."

"가는 길에 필요한 물품을 우연히 발견할 수도 있겠죠." 라고 라자루스가 말했다. 세상이 것처럼 친절하기만 하다니. 불행히도 우리가 지나야 할 황량한 길에서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불을 피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과 유일한 식량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은 여전히 저 벽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디노는 수도원의 남쪽 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여기와 마운틴 마우스 사이에 남은 식량은 모두 기숙사 안에 숨겨져 있죠. 부엌에 남아 있던 식량을 전부 가져왔거든요."

라자로는 서쪽을 바라보았다. "산구는 동굴이야. 저기 어두운 지평선 쪽을 가리키며 말했지."

"맞습니다." 오디노가 대답했다. "그러니 지금은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햇볕을 피할 수 있을 테니까요. 동굴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운틴 마우스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니콜라스 신부님께서도 제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것을 찾았는지."

"당신은 단 반나절 만에 저를 정확히 그곳으로 안내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오, 그래요!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니콜라스 수사님이 말씀하시길,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고 정확히 서쪽으로 걸어가면 산의 입구로 곧장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죠. 저는 절대 길을 잃지 않아요. 직접 보시면 알 거예요."

오디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라자로가 마치 신과 같은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더 뛰어났을지도 모른다. 그의 방향 감각은 철새의 방향 감각 만큼이나 정확했을 것이다. 오디노는 라자로가 명령 며칠 밤을 서쪽 길로 걸어야 한다 해도 그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관참을 거라고 확신했다. 오디노는 수도원 쪽으로 몸을 돌리며 중얼거렸다. "드디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르겠군. 병사들이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식량을 가져와야겠다."

"하지만 병사들이 우리를 잡을 것이다!" 라자로는 오디노의 옷자락을 움켜쥐며 외쳤다.

"안 돼." 승려는 소년의 손을 뿌리치며 몸을 돌리면서 대답했다. "나는 혼자 가야 한다. 네가 잡힐 위험을 감수할 순 없어."

나사로는 바위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럼 저는 여기, 이 바위 뒤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오디노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여기 계시면 순찰하는 병사들에게 발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늦어지면 햇볕을 피할 시간도 없을 겁니다." 오디노는 동쪽을 바라보며 밝게 빛나는 보름달을 응시했다.

라자루스는 공동묘지의 어두컴컴한 서쪽 가장자리를 살살이 살피다가 오디노에게로 돌아섰다. "그럼, 어디에 숨어야 하지?"

"여기가 아니라, 산 입구야." 오디노가 대답했다. "가는 데 반나절밖에 안 걸려. 시간도 얼마 안 걸려." 네 편이야. 그리고 넌 그걸 어떻게 찾는지 알고 있지, 그렇지?"

라자루스는 고개를 떨궜다. "그렇지도 모르지. 니콜라스의 말이 사실이라면 말이야. 하지만 "

"니콜라스의 말이 맞다, 나사로야. 그는 네 아버지와 나에게 산입구를 보여주었지. 그가 그곳에 이름을 지어줄 때 우리도 거기에 있었던단다."

"그래도 우리 함께 떠나야죠. 내일은 수도원에 다시 오셔서 식량을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렇죠?"

"아니, 나사로. 그 여정은 험난한 길이란다. 수많은 언덕과 계곡을 넘어야 하니까." 오디노는 소매로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았다. 그는 떨리는 손을 어깨에 얹었다.

그는 배를 움켜쥐고 고개를 저었다. "저는 거기까지 걸어갔다 오는 게 무리예요. 무거운 식량 자루를 메지 않아도 저 자신에게조차 짐이 돼요. 만약 제가 혹독한 추위에 죽지 않고, 당신 말씀대로 내일 돌아온다면, 그때는..."

저녁의 소란이 가시고 문지기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면 어떻게 병사들을 몰래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디노는 바위 너머 수도원 담장 너머를 가리켰다. "저기, 성당 꼭대기에 있는 저것들을 보십시오. 새 추기경이 문설주에서 풀어놓은 것들입니다." 라자루스는 교회의 지붕과 첨탑을 바라보았다. 형체 없는 환영들이 모여들면서 윗부분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디노는 말을 이었다. "저것들은 일종의 영체이며,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화려한 광경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려는 것 이상의 의도를 품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의 존재와 움직임은 이 수도원에 훨씬 더 큰 악이 닥쳐올 것임을 암시합니다.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도 그들은 마치 영혼의 군대처럼 모여들고 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지붕 조각상들 사이로 줄지어 모이는지 보렴. 한 가지 확실한 건, 애야. 저들이 조식을 갖추러 올 때쯤엔 우리는 여기 없을 거란다.

그러니 병사들이 그것들과 지하 묘지에서 피어오르는 새로운 연기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지금 움직여야겠다. 지금이 식량을 가져오기에 가장 좋은 때다.

"그들이 당신을 잡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나사로는 다시 수도사의 옷을 잡아당기며 불평했다.

오디노는 허리에 손을 얹고 뒤로 기대앉았다. "만약 그들이 나를 붙잡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로잡힌 수도승에게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나사로, 군인들도 주님을 공경합니다. 내가 성직자이자 하느님의 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내게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산구의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십시오.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규정에 따라."

나사로는 오디노의 옷자락을 놓아주고 그의 머리를 떨어뜨렸다.

"게다가," 오디노가 덧붙였다. "만약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한다면, 나는 염소로 그들을 모두 때려눕히고 쫓아낼 것이다!"

라자루스는 고개를 들어 흔들었다. 수도 사는 소년의 가면 아래에 미묘한 미소가 숨겨져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소년은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먼 곳을 응시했다.

오디노는 나사로 앞에 무릎 꿇고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는 네가 네 아버지처럼 강해지기를 기대한다. 너는 그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를 자랑스럽게 만들 것이다, 그렇지?"

"그러겠습니다, 수도사님." 라자루스가 투덜거렸다.

오디노는 병사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주변을 살폈다. "서쪽으로 정확히 걸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라자루스가 단언했다. "하지만 수도사님,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래, 알아." 오디노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서쪽을 가리켰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보면,

저녁 시간의 절반 동안 정확히 서쪽으로 걸어가십시오 . 그러면 마운틴 마우스가 당신의 것입니다. 가는 길에 눈에 띄거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절대대로 길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당신의 경로는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망설이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산을 돌아가 버릴지도 모른다. 모든 것을 피하고, 동굴로 향하는 좁고 곧은 길만 택하라. 내 말을 이해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수도사님."

“만일 동이 뜨기 전에 동굴에 도착하지 못하면 햇빛을 가려야 한다. 정 안 되면 구덩이를 파고 흙과 돌로 몸을 덮어라.” 오디노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나사로의 어깨를 세계 흔들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다, 나사로! 태양이 너를 죽일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내가 직접 봤는데,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다! 네가 비명을 지르는 순간, 살점이 돌처럼 굳어버린다! 되돌릴 방법은 없다. 태양이 너의 죽음이 될 것이다, 나사로. 그 후에는 생명이 없을 것이다.”

라자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디노는 그를 풀어주었다. 수도사에게는 소년의 침묵과 뻣뻣한 자세가 충분한 대답처럼 보였다.

“이제 이곳을 떠나거라 . 이곳에는 오직 악만이 남았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어떤 이유로든 흔들리지 말아라.” 오디노는 소년의 옷자락을 바로잡아 주었다. 그는 다시 한번 주변을 살피고는 소년을 재촉하며 말했다. “내 말을 이해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수도사님."

나사로는 서쪽의 검은 지평선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앞을 똑바로 바라보며 외쳤다 . "너희도 곧 나를 따라올 것이다 —오늘 저녁?" 그의 목소리는 떨리는 말투로 갈라져 나왔다.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이른 아침 산구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오디노가 그에게 확신시켜 주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고한 결의로 너는 앞으로 닥칠 시련을 이겨낼 것이다. 나사로, 너는 이제 어른이다. 너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모든 짐과 축복을 짊어지고 있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네 길에서 벗어나지 마라. 너는 이제 이반이다. 자, 가 거라! 그리고 발걸음을 조심하라!”

소년은 어깨를 꺾듯이 세우고 묘지 안쪽으로 더 깊숙이 걸어 들어갔다. 오디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망토를 두른 소년의 실루엣이 칠흑 같은 밤하늘 속으로 사라져 갔다. 마침내 그 형체는 근처 계곡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서풍이 시골 풍경을 뒤덮었다. 오디노는 소년이 충분히 멀리 사라졌다고 확신했을 때 비로소 바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아래, 달빛에 비친 눈물방울이 돌의 표면을 적셨다. 오디노는 이반을 위해 울었다. 이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사로를 위해 울 수 없었기에, 나사로는 자신이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이반' 인 척했기에 , 오디노는 나사로를 위해 울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위해 울었다. 자신은 결코 이반이 나사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반' 이 될 수 없었기에 .

아아, 오디노는 극심한 고독 속에서 무너져 내렸다. 마치 둥근 바위 위에 쓰러진 뚱뚱한 수도승 처럼 느껴졌고,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홍수에 휩쓸려 사라져 버린 보잘것없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고 자책했다.

그로테스크 ~ 고딕 서사시 (저자: GE 그레이븐) || 제7장 || 온라인 무료 다운로드: <https://www.gothicnovel.org> 모든 권리 보유 (c)1998 - 미국

격렬한 공허함과 그리움— 오랜 세월 죽어 귀먹은 영혼들이 묻힌 드넓은 수도원 묘지 한가운데서, 숨겨진 슬픔을 토해내며 흐느끼고 있다 .

[7장 끝]



이 문학 작품은 창작 되었습니다. d는 오직 ~ 에 한정하기 위해

에드거 앨런 포 (1809-1849)

— 그의 업적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기를 —



~[고딕노블.org](https://www.gothicnovel.org)~